

천안함 46용사 전원 화랑무공훈장 추서

이 대통령 내외, 故 천안함 46용사 합동영결식 참석

이명박 대통령내외는 4월 29일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故 천안함 46용사 합동영결식에 참석했다. 이날 영결식은 제2함대사령부 내 안보공원에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이 장의위원장을 맡은 '해군장'으로 희생장병 유가족을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 이용훈 대법원장, 김형오 국회의장, 김태영 국방장관, 각 군 관계자 등 2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가족들과 악수를 나누며 위로의 말을 전하고 46용사들의 영정 앞에 헌화했으며 46용사 전원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천안함 희생장병의 영현들이 운구차 행렬을 따라 영결식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영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자리를 지켰다. 또한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대통령을 비롯해 군 관계자, 외교사절단 일반 국민 등 2천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 6.25 영웅 백선엽 예비역 장군도 참석해 머리를 숙였다. 천안함 46용사는 이날 오후 3시 대전현충원 현충문 앞에서 합동안장식을 갖고 합동묘역에 잠들었다.



대한기독사진가협회 제2대 회장 이상중 목사 선출

회원들의 뜻에 따라 열심히 협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터



대한기독사진가협회 제2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신규 임원들 기념촬영

대한기독사진가협회 제2회 정기총회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우림교회(성상현 목사)에서 지난 4월 26일(월)오후 6시 개최되어 이상중 목사(새용진교회)가 대의원 제2대 회장에 선출됐다. 1부 부회장 이상중 목사 진행으로 시작된 예배에 강상훈 목사가 기도, 이진호목사가 설교에 나섰으며, 회장 엄영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회장 엄영수 목사 사회로 2부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임원선출에 들어가 이상중 목사를 만장일치 2대 대기협 회장에 추대했다. 이날 신임회장 이상중 목사는 취임사에서 "먼저 부족한 사람을 일꾼으로 선택하여 협회의 열매를 손에 쥐어 주심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여러분의 사랑임을 고백한다"고 말하고, "전임 회장께서 수고하시고 회원들께서 이루어 놓은 아람



신임회장 이상중 목사

다운 집(대한기독사진가협회)을 잘 관리하라고 청지기의 사명을 주었기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한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와 수고에 최선을 다해 협회의 뜻을 세워나갔겠다"고 말했다. 이제 임기동안 회원들의 뜻에 따라 열심히 노력함으로 협회를 이끌어 갈 것을 다짐하면서 전임 회장의 지도를 잘 받아 지금까지 화목했던 분위기를 이어가, 영상 선교를 통해 협회발전과 기독교문화를 다져가는데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다짐하고, 대한기독사진가협회와 회원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한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사설

‘살아남은 자remnants’의 뉘는 무엇인가

잔인한 4월이라 했는가? 천안호 장병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지켜보며, 참으로 무겁고 침통하고 우울한 한 달이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다. 루마니아 작가, 게오르규의 '25시'가 생각나는 한 달이었다. 작품속의 주인공 중에, 당시의 선지자인 목사도, 최고의 지성인 시인도 전쟁의 포화 속에 모두 순교한다. 그러나 가장 무식하고 못한 농사꾼 요한모리츠 가족만, 불타다 남은 시꺼먼 그루터기처럼 상처투성이로 살아남는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remnants 그들은 무엇인가? 왜? 무엇을 위해 살아남았는가? 남은 자remnants의 뉘는 무엇인가? 인류역사에 가장 처참하고 비극적인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며 그 잿더미 속에서 살아남은 자remnants는 역사의 씨앗seeds, 종자로 비극적인 역사의 목격자, 증인witness으로, 새 역사의 농사지를 일꾼workers으로 남은 것이다. 성서에서 하나님나라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remnants(렘 31: 7-9) 통해서 다시 새 역사를 만들어간다. 언어는 강 상류에 올라와 몇 천개의 알을 낳고 죽는다.

알에서 깨어난 어린 언어새끼는 강을 타고 바다로 내려가, 5-6년 동안 북태평양 오션마일을 돌아 어미가 되어 다시 돌아온다. 그런데 2백 마리 중 1마리 정도가 살아서 씨앗이 되어, 다음 세대의 족보를 이을 사명을 갖고 올라온다. 살아남은 연어 1마리는 종족의 보전을 위해, 199마리의 뉘까지를 다해야한다. 그리고 남태평양 거북이는 해변모래 사장에서 태어나 태평양 바다로 나아가 30년 만에 어미가 되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올라와 모래밭에 구덩이를 파고 100-200개씩 알을 낳고 다시 바다로 돌아간다. 이 알들은 10주-12주 만에 부화되어 바다를 향해 출발을친다. 이 사이에 수백 마리의 광어 갈매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물어가고, 겨우 몇 마리가 살아 바다에 들어가는 데 바다 속에는 상어 떼가 또 기다리고 있다.

결국 30년 동안 바다에서 살아남아 어미가 되어 알을 낳기 위해 돌아오는 거북이는 백 마리 중 하나 꼴이다. 살아남은 자 remnants 그 1마리가 대를 이을 종자이며, 99마리의 뉘까지를 대신 살아 주어야한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kairos, 이 시대, 이 역사 속에 살아남은 자remnants, 우리는 하나님나라의 종자인 동시에 '생명의 빛진 자다. 우리 남은 자remnants의 사명은 노아의 8가족처럼 새 역사의 종자seeds요, 역사의 증인witness이며, 새 역사의 일꾼workers 노릇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그들을 위해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작은 보답이요, 비극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교훈이다. 우리 결을 떠난 46명의 영웅들의 명복을 충심으로 비는 바이다.



소진우 목사 2009년, 2010년 성회일정



강사 소진우 목사

H · P : 010-5267-1434
교회 : 02)3391-9676(대)

- 로고스세계선교협의회 부총재
- 열방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예복교회 담임

한 해 동안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1월	2009년 6월	2009년 10월	2010년 2월	2010년 6월	2010년 9월
3 갈렙산기도원(임예제 원장) 5-8 일산읍 민교회(주성민 목사) 12-14 홍신교회(김광성 목사) 19-21 갈매리교회(오덕주 목사) 26-30 팔리번 선교교회	1-4 인천마가다리방백보영 목사) 7-10 새롬교회(김대수 목사) 11 한빛교회(임선택 목사) 15-18 갈렙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8-20 인도순복음교회(장정환 목사) 22-24 임마누엘수양원(이수영 원장) 26	1 마가다리방백보영 원장 5-8 열매교회(정연태 원장) 12-13 정기노회 13-15 서복교회(배경락 목사) 18-20 과천예복교회(노영수 목사) 22 서부시절연한교회(장대환 목사) 25-28 에광교회(최영민 목사)	1-3 한빛교회(전복수 목사) 7 성미교회(김봉희 목사) 12-13 갈매리교회(김광성 목사) 18-20 홍신교회(김광성 목사) 15-18 신교회(방문) 21 신교회(방문) 22-24 평택성당교회(김복록 목사)	5/31-3 진주기도원(김진환 원장) 6-9 성림16주년기념 축복성회(예복교회) 14-16 열방교회(신보현 목사) 21-24 갈렙산기도원(이국란 원장) 28-30 세영교회(이영근 목사)	5-7 퇴계원 장로교회(김동진 목사) 13-16 교단총회 26-28 성산교회(안성기 목사)
2009년 2월	2009년 7월	2009년 11월	2010년 3월	2010년 7월	2010년 10월
2-5 해방수양원(백재욱 원장) 6 갈렙산기도원(임예제 원장) 9-11 목산성당교회(박병정 목사) 16-18 철곡면 협성교회(김상호 목사) 23-25 소양교회(조성봉 목사)	3 성소기도원(박정원 원장) 5-8 새영교회(임영근 목사) 13-15 신학교 제1나성산교회(김장년) 20-22 은환기도원(조은) 24 갈렙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7-30 임마누엘기도원(김순숙 원장)	2-5 갈렙산기도원(임예제 원장) 9-11 임마누엘교회(김정환 목사) 12 수송기도원(이태희 원장) 16-20 선교지 방문 23-25 전국목회자영성대회(총회장 유민석) 30-2 대흥교회(정광기 목사)	7/1 전보신민족기도원(유택진 원장) 8 불철 축복대(김영복교회) 21 성일교회(박태환 목사) 26 화광교회(윤호균 목사) 29-4.1 갈렙산기도원(임예제 원장)	5-7 에스라선교센터(이진희 원장) 12-16 신학성 여름복음제미나 19-22 에디나공동체(최민수 원장) 26-29 임마누엘기도원(김순숙 원장)	4-6 서복교회(배경락 목사) 11-12 정기노회 12-14 은환기도원(조은 원장) 17-30 2주년축복성회(예복교회)
2009년 3월	2009년 8월	2009년 12월	2010년 4월	2010년 8월	2010년 11월
2-4 도원교회(유순기 목사) 2-31 불철축복대(김영복 목사)	3-5 마가다리방백보영 원장 5-7 한빛교회(임선택 목사) 10-13 에디나공동체(최민수 원장) 17-20 천주기도원(최정숙) 23-25 은환기도원(조은) 28 갈렙산기도원(이영근 원장) 30-5 십자가복음교회(김순숙 원장)	7-9 신성교회(김영진 목사) 14-17 해방수양원(백재욱 원장) 20-23 한빛교회(신규래 목사) 24 갈렙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5 임마누엘수양원(이수영 원장)	5-7 도원교회(유순기 목사) 12-13 정기노회 19-21 이레교회(황송주 목사) 22 호신교회(최자삼목사) 26-30 선교지 방문(방문)	2-5 수도권기도원(이영진 원장) 9-11 인천마가다리방백보영 원장 16-18 경성교회(이정근 목사) 23-25 진접 오남지역 기독교 연합성회(장원홍 목사) 30-9.1 푸른초장교회(김영열 목사)	1-3 신천장로교회(김형규 목사) 15-17 수원명인교회(김완구 목사) 22-24 대흥교회(정광기 목사) 29-12/2 할렙교회(전용목 목사)
2009년 4월	2009년 9월	2010년 1월	2010년 5월	2010년 12월	
6-8 목암교회(주호준 목사) 13-14 이무리교회(이재경 목사) 14-16 남양주시기독교 연합성회(김병식 목사) 20-23 흥화원 원교회 27-29	4-7 에스라선교센터(이진희 원장) 10-13 불철축복성회(예복교회) 14 갈렙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8-20 미원교회(이봉원 목사) 21 민족복음회부흥사업수원 25-29 선교지 방문(25. 부흥사업수원)	4-7 도곡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0 대광교회(오봉식 목사) 11-13 전보신민족기도원(유택진 원장) 18-20 신광교회(조효환 목사) 24 경향교회(한현희 목사) 25-27 전보신민족기도원(유택진 원장) 29 신일성결교회(최세걸 목사) 갈렙산기도원(임예제 원장)	3-6 성산수양원(윤호균 목사) 10-12 새영교회(김병식 목사) 17-20 광명기도원(김원태 원장) 24-26 미원교회(이봉원 목사)	6-8 예수비전교회(김승업 목사) 13-15 신성교회(조성남 목사) 20-22 청남교회(조성민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WCC 2013 한국총회 개최를 반대한다”

27개 보수교단 지도자들, WCC 반대 대책위 구성 … 위원장 홍재철 목사

오는 2010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WCC 총회를 반대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예장합동 총회장 서정배 목사, 예장고신 총회장 윤희구 목사, 예장합신 총회장 임석영 목사를 비롯한 27개 교단 지도자들은 ‘세계교회협의회(WCC)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위원장에 홍재철 목사(부천 경서교회)를 선임했다. 대책위는 WCC의 정체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11시 예장합동 총회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대책위원회 공동기자회견에 앞선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예장합동 총회장 서정배 목사는 “신앙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 하는 교단장과 책임자들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WCC 신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독교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맡은 예성 직전 총회장 박병도 목사는 “경제가 발전하고, 교회수가 늘어나면서 WCC에 대한 문제점이 희석됐다. 그런데 보수주의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단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 감사하다.”고 말하고 “WCC 세계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으로 인해 보수교단들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신앙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장합동 부총회장 김삼봉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60~70년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운동을 할 때 교회도 부흥하고, 경제도 발전했다.”며 “성경의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킬 때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예장합동 증경총회장 김동권 목사도 격려사를 통해 “성경의 절대 권위를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예장고신 증경총회장 박중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예장 고려개혁 총무 송태섭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예장고려 총무 강구원 목사가 경과를 보고했다. 강 목사는 “WCC의 범신론적 종교혼합주의를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강 목사 속한 교단은 지난 9월 조선일보에 WCC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WCC 신학 논쟁에 불을 붙인 교단이다.

예장합동 총무이자 대책위원회



대책위원장 홍재철 목사 JTNTV & 뉴스파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치우 목사가 조직안을 발표했다. 조직안에 따르면 상임고문에는 이만신 목사(기성), 서기행 목사(예장합동), 석원태 목사(예장 고려), 박병식 목사(예장합신), 신신목 목사(예간), 이병규 목사(계약), 박중수 목사(예장고신), 고용남 목사(기침), 강용조 목사(예성) 등 9개 교단 증경총회장들이 선임됐다.

공동회장에는 유만석 목사(예장백석), 한창영 목사(예장국제), 허벽 목사(고려개혁)를 비롯한 27교

비판했다.

홍 목사는 이어 “십자가의 길은 험난하다. (WCC를 반대하는 일을 하다보면) 무서운 공작이 있을 수 있다. 감당하기 어려운 큰 짐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며 “신명을 바쳐 거룩한 전쟁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롭게 정립되고, 한국 교회의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길로 들어서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목사는 앞으로의 활동방향으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WCC

기독교적 단체이기에 우리는 이 단체의 한국총회(2013) 개최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WCC는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최종적 규범이라는 것과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WCC는 성경의 기본 교리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과 일치성을 추구하며, 이단과 적그리스도와 자유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규제하지 않고, 교회의 변증적 사명을 무시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WCC는 성령을 정령(精靈)과 동일시하는 초혼제(招魂祭)를 용납하고, 성령을 물질론(物質論)적으로 해석하는 비기독교적 사상을 방조하였다.”고 비판하고 “WCC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라는 개념을 선교에 도입하여 인간화, 화해, 사회참여 등을 선교의 지상과제로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전도의 간박성과 구령사업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또 “WCC는 ‘통전적 선교’를 말하면서조차 실상은 빈곤 퇴치와 사회활동과 구조와 철폐 등에 치우친 선교를 하고 있다.” 지적했다.

로마 가톨릭과의 일치 추구도 비판했다. 대책위는 “WCC는 로마가톨릭교회와 일치를 추구하고 정교회를 회원으로 가입시켜, 선교유예(Moratorium)를 시행하도록 하여 성경적 복음 진리 전파를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WCC는 마르크스주의와 해방신학과 궤를 같이하는 좌파 성향의 옹공주의 태도를 지녀왔고, 공산권 안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 생명박탈, 신앙의 억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WCC는 ‘교회’의 연합체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성찬 중심의 교제단체이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 교회의 첫 번째 표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실상 교회의 본질인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포기하였다.”고 비판한 대책위는 “WCC는 신학적 다원주의와 신앙무차별주의(Differentism)를 지향하며, ‘교리는 분열시킨다’고 하면서 기독교 교리의 중요성을 폄하하고 교회의 생명력을 쇠퇴시킨다.”고 비판했다.

신앙 때문에 매일 482명 생명 잃어

최근 LA 크리스찬투데이(US에 따르면 전 세계 기독교 순교자가 한해 약 17만6,000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것은 하루 평균 482명, 3분당 1명 꼴이 된다.

월드넷데일리가 인용 보도한 이 수치는, 2008년 중반부터 2009년 중간까지 산정된 것이다. 또한 세계복음주의연맹(WEA)에 따르면, 60개국의 1억여 신자가 기독교 신앙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 유린(무시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독교피박해자를 돕는 사역체 ‘오픈도어USA’(대표:칼 물러)와 ‘더웨이어모브먼트’ 사역회(대표:커크 캐프런 배우), ‘리빙위터 사역회’(대표:레이킴포트) 등이 나란히 손을 잡고 이런 순교상황을 온 세계에 알리는 일에 발벗고 나섰다. 또 지난 22일 오후, 이들 3개 파트너 그룹 대표들이 ‘글 연사’로 나선 무료 웨비나를 ‘박해의 표징들’이란 주제로 1시간 동안 갖기도 했다.

리빙 위터의 에밀 즈웨인 수석 부대표는 “오늘날 같은 현대에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참 믿기 어렵다”면서 “우리는 과연 미국에

도 그런 박해시대가 올 것인가를 묻게 된다”고 덧붙였다.

오픈도어는 올 상반기에 ‘2010년 세계 악성 박해국가 명단’인 ‘월드워치(세계감시) 리스트’ 발표와 함께 특히 북한의 경우, 신자들을 생화학무기의 실험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회교강제국인 이란의 경우 최악의 10위권 국가들 중 북한 다음으



2009년 회교도들에 박해를 받아 현재 수감 중인 이란의 마리아 루스탐푸르와 마르지에 아미르자데 등 두 신자. 크리스찬투데이 .US

순교자 연간 17만6천명

… 60개국 1억 신자

기본인권 유린도

로 2위를 마크했다.

이란을 비롯, 최악의 박해국 50개국 중 35개국이 회교법인 샤리아를 신자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적용한다. 세계 45개국에 정부방을 두고 지구촌 피박해자들을 섬겨온 최대 관련 사역체인 오픈도어의 제리 디스트라 대변인은 샤리아를 적용하는 회교국이 늘면서 그만큼 박해국가도 늘고 있다

CTS “올해 안으로 부채 상환 후 사옥 헌당하겠다”

창립 15주년을 맞는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가 올해 안에 남아 있는 부채를 조속히 상환하고 노량진 사옥을 헌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을 요청했다.

CTS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조선회관에서 운영이사들을 초청, ‘창사 15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 감경철 회장은 “1995년 12월 창립 후 얼마 되지 않아 IMF로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 통해 우리를 연단하셨고 감사기도의 제물을 주셨다”고 인사말을 꺼냈다.

그는 이어 “10년간 경영을 맡으면서 300억 원의 부채를 상환했고, 이제 100억 원 가량의 부채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교계 인사들은 CTS가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순수 복음방송의 위상을 지켜나갈 것을



▲30일 오전 조선회관에서 열린 '운영이사 초청 창사15주년 감사예배'에서 조종기 목사가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다.

당부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설교를 전한 조종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는 “아브라함과 나사로의 근본적인 차이는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부요함의 의식이 있었고, 찬란한 꿈을 꿔으며, 믿음의 사람이었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했다는 데 있다”며 “CTS가 돈의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방송국이 될 것과 온 세계에 말씀 증거하는 사명을 다

할 것을 믿고 축복한다”고 격려했다.

김선도 감독(광림교회 원로), 길자연 목사(왕성교회), 박중순 목사(충신교회) 등도 “15년간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방송선교의 사명에 힘써 온 CTS가 앞으로 한국교회의 파수꾼으로 세계 선교의 장을 열어가길 바란다”며 축하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뉴스미션

피종진목사 5월 국내·외 성회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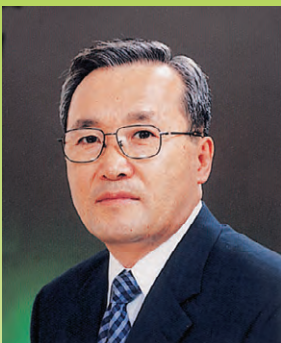
1(토) 저녁	안양 주만나교회(김재인 목사) ☎(031)464-2589
2(주)~5(수)	부천 역곡동교회(김정식 목사) ☎(032)344-7811
6(목) 오후	세계성령부흥사원수원(원장 고 훈 목사) ☎(02)474-7801
서울 십자가교회(황병은 목사) ☎ 010-3550-5927	
10(월) 오전	철원 성소기도원(원장 박정연 목사) ☎(033)458-7700
10(월)~11(화)	광주 살롬선교센터(원장 고정인 목사) ☎(062)573-5530
11(화) 오후	한국도농선교회(본부장 최원수 장로) 대전연합성회
	장소: 대전순복음중앙교회(김홍국 목사) ☎(042)535-8511
13(목) 오후	광주 지산교회(안기영 목사) ☎(062)222-0736
	주최: 한국도농선교회(본부장 최원수 장로)
13(목) 저녁	화성 주사랑교회(김승희 목사) ☎ 010-8773-2171
14(금) 저녁	부천 세계지유선교센터(원장 민충만 목사) ☎(032)329-9182
14(금) 철야	안양 갈매산금식기도원(담임 조성근 목사) ☎(031)472-7213
16(주)~19(수)	서울 순복음마포교회(최영광 목사) ☎(02)716-0691
18(화) 오전	논산 만복수양관(원장 박귀자 목사) ☎(041)733-1116
19(수) 오전	용인 세예교회(소강식 목사) ☎(031)896-1000
20(목)~21(금)	수원 서호중앙교회(강인선 목사) ☎ 016-464-5299
21(금) 오전	남서울중앙교회(배종진 목사, 여찬근 목사) ☎(02)3411-9191
21(금) 철야	2010천만인성명대회
23(주) 오후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02)782-4851
24(월)~27(목)	부산 감림산기도원(원장 이육만 목사) ☎(055)375-0831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www.nscs.or.kr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번지
교 회 : (02)3411-9191, FAX : (02)3411-9111
목사관 : 010-5255-7777, FAX : (02)401-7770
E-mail : Godbless3333@gmail.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성교회

(부설 : 광성노인대학)



담임 장창수 목사

장 로 **이유영 윤호중 조두현**

안수집사 **김형준 차경식 공종현 윤진명 이찬영**

(우)447-140 경기도 오산시 궏동 661-1

☎ 031)373-1151, 377-9372 팩스 031)372-2583

대한기독교사진가협회

www.christianphoto.co.kr



목회자를 비롯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기독교사진가 협회입니다.

(당신도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작품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기독교사진가협회 / 대한기독교영성선교회
회장 **이상중 목사(전주 세움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빛과소금교회



담임 **이재갑 목사**
(본지, JTN방송 운영이사)

장 로 **김영주 오정순 김성임**

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389-50
전화 02)938-3521,
016-228-3521

서경석 목사 “교회도 못 견디는 재개발, 이대로는 안 된다”

교회 차원에서 재개발 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서경석) 세미나에서다.

“영세주민, 영세교회 피해입는 재개발 정책은 바뀌어야”

용산 참사 이후 현행 재개발 제도의 문제점에 관심이 모아졌다. 재개발 지역 교회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난 2월 한기총에서도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 문제 해결에 나섰다.

위원회 신설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재개발로 개척교회나 서민들이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전문가와 재개발 지역 교회 목사와 장로가 참석했다.

발제에 나선 위원장 서경석 목사는 “재개발 지역에 건물이 없는 이대교회들은 이사비용만 받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상황이 그렇다보니 교회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해결에 나서게 됐고, 한기총에서도 대책위원회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목사는 재개발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가난한 주민들이 재개발과정에서 억울하게 내쫓기는 일이 없도록 원주민의 재정착을 전제로 한 도시재생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그는 “더 이상 재개발사업을 명분으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세입자, 영세상인, 영세교회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이들이 피해보지 않는 도시정비사업의 틀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



현 재개발 정책으로 인한 문제 개선을 위해 한기총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뉴스미션

고 주장했다.

“재개발 지역, 교회끼리도 싸운다”

이번 세미나에는 재개발 지역에서 재개발 반대에 나서고 있는 교회관계자가 참석, 재개발로 인한 지역교회 간의 분열과 갈등 상황을 알렸다.

서인천교회 박용목 목사는 “우리 지역이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큰교회와 작은 교회 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큰 교회에서는 재개발에 찬성하고 있지만, 작은 교회들은 교회도 잃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어 기독교인 간에도 갈등이 있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우리가 떠나면 큰 교회로서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죄를 짓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정창무 교수는 재개발의 문제점이 몇십 년 동안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지적해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재개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정책이 바뀌지 않은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사고의 방향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가난한 사람이나 교회가 허름한 주택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인가”라고 반문하며 “일반 시민들이 가난한 주민들이 허름한 주택을 선택하는 권리에 동의한다면 이것이 재개발 문제의 본질에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기총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재개발 정책 개선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서경석 위원장은 “재개발로 고통받는 이웃들에 대해 교회가 관심을 갖는 것은 선교적, 신앙적 차원의 문제”라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개발 정책 개선이 필요함을 알리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법정 송사는 한국교회 치부 드러낸 것”

기독교화해중재원 제2대 원장 양인평 장로 취임예배 드려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열일까. 예수 믿는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독교화해중재원 제2대 원장 양인평 장로 취임예배가 27일 오전 11시 강남중앙침례교회(담임목사 피영민)에서 이만신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이광선 목사(한기총 대표회장), 김황식 감사원장(애중회 회장), 황우여 장로(국회조찬기도회장)를 비롯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피영민 목사(화해중재원 부이사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김삼환 목사는 “우리가 살면서 억울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맞대응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도 모든 것을 참으셨다. 서로 용서해 주고 참으면, 은혜와 축복 그리고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저도 묵하면서 억울한 일도 당했지만, 누구를 경찰서에 고소해 본 적이 없다.”며 목회자와 성도들이 평화와 화해의 열매를 자자손손 거두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2008년 4월 초대원장으로 취임하여 2년간 화해중재원 사역의 터를 다진 명예원장 김삼원 장로(전 대법관)는 “기독교화해중재원을

개원하고 상담은 많이 했지만 화해, 조정, 중재 건수는 많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중재 판정은 사회법정의 확정 판결이나 같은 것이다. 중재 판정이 되면 사건이 쉽게 해결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이 해결된다.”며 한국 교회가 기독교화해중재원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장로는 “기독교화해중재원은 성경의 기준에 근거하여 관정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승리나 일방적인 패소가 없다. 사료가 상처받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제2대 원장으로 취임한 양인평 장로는 “한기총 법률고문단이 중심이 되어 기독교화해중재원이 만들어진 것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한국 교회의 모든 송사는 기독교화해중재원에 맡겨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 장로는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뭘까.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 다.”며 “세상 법정에 간다는 것은 한국 교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고, 한국 교회 성도들끼리 이렇게 부끄럽게 산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부를 세상 법정에 드러내기 보다

는 기독교화해중재원으로 보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 장로는 특히 “재판에서 내가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장로는 “기독교화해중재원을 통해 용서의 바람, 화해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조찬기도회장 황우여 장로는 격려사를 통해 “대법원 12명이 1년에 2만 건을 처리한다.”고 밝히고 “교인수가 늘어나는데도, 자살자가 많고, 이혼자가 많고, 소송이 줄어들지 않는 현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도 기독교화해중재원이 한국 교회의 화해와 일치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축사를 전한 김황식 감사원장은 “선진국가들은 재판이 아닌 방법으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기독교화해중재원의 취지와 활동이 사회로까지 확대되어 시민운동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소엽 권사가 ‘화해의 다리’라는 제목으로 축사를 낭송했다.



기독교화해중재원 제2대 원장 양인평 장로 취임사

기독교화해중재원은 한국 교회 및 교인들의 각종 갈등 및 분쟁을 성경적인 원리와 실정법의 적용을 통하여 소송 외 분쟁해결방법인 상담, 교섭, 협상, 조정, 화해, 중재 등의 방법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다.

기독교화해중재원에는 유지담당 대법관, 손지열 전 대법관, 이응우 전 대법관, 잔용태 전 검사장을 비롯한 33인의 법조인과 김상복 목사, 박종화 목사, 이정익 목사 등 목회자 17인, 홍인중 목사 등 학자 10인이 중재인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조정위원으로는 심동섭 변호사, 전문수 변호사, 이강평 목사 등 54인이 참여하고 있다.

JTN, 뉴스파워

대광교회 성전봉헌예배 및 목사 안수식 가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대광교회(담임 이종완 목사)에서는 4월 25일(주일)오후 3시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199-3 소재에서 대광교회 성전 봉헌예배와 제2회 서울 강동지방회 목사 안수식을 가졌다.

대광교회는 2009년 3월에 기공식을 가져 2010년 4월 완공되어 새성전 봉헌예배를 드렸다. 건축면적 496.42㎡ 연면적 3,320.61㎡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교회가 세워졌으며, 교회의 모형은 야곱의 사다리대를 연상케 건축을 했다는 이 목사, 2012년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하며, 소감을 밝혔다.



담임 이종완 목사

이날 담임 이종완 목사 집례로 1부 예배가 시작되고 정진교 장로(서울강동지방회 부회장)가 기도를, 이기을 목사(동회 서기)가 성경봉독을, 대광교회 찬양

대의 찬양이 있었으며, “반석위에 세운 집”이란 제하의 말씀을 이신복 목사(동회 교육원장)가 선포했다.

2부 성전봉헌식에서 송운기 목사(교단 총무)가 축사를 맡았으며, 박종명 목사(예성원로목사회장), 안장건 목사(전호동교회 원로목사)가 격려사를 했다.

이어 제2회 서울강동지방회 목사 안수식이 거행되어 안수위원 김홍양 목사, 이종완 목사, 이신복 목사, 지광은 목사, 정성기 목사, 정성진 목사, 유재성 목사, 주명훈 목사, 설봉식 목사 등이 김전하 신용석 장성남 씨를 서약하고 안수하여 목사로 세웠다.

종암교회 창립 47주년 및 임직예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종암교회(담임 최정훈 목사)는 4월25일(주일)오후 4시 성북구 종암동 131-4 소재에서 교회창립47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예식을 드렸다. 최정훈 목사 사회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함용철 장로(서울지방회 부회장)의 기도, 정순출 목사(서울북지방 서기)가 성경말씀 행27:22-26절을 봉독하고, 정순출 목사(서울북지방 회장)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어 2부 흥광표 명예장으로 추대식에 이어 담임 최정훈 목사는 3명의 집사 안수식과 12명의



종암교회(최정훈 목사)창립 47주년 임직예배 기념촬영

권사 취임식을 거행하고 공포했다. 이어 축하와 인사에서 이정찬, 이은혜(현악연주) 축하 연주를 하고 방인근 목사(수유리교회)의 축사와, 임직자들을 위하여 미영출 목사(성북감찰장), 김기영 목사(전곡교회)가 권면에 나섰으며, 유동원(원로목사)축도로 마쳤다.

저지스티입즈 | www.JTNTV.kr JTN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 피종진 목사 사장 : 소진우 목사 발행인 : 정기남 목사

전국 16개 지사 / 해외 9개국 지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40-31
▶E-mail : cupress-1@hanmail.net ign88@paran.com
▶전화 : 070)8230-0032, 0034, 02) 팩스:02)741-0031
▶대표 : 011)468-6574, 02)741-0031(팩스 겸용)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농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차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이제 교회도 풀 칼라시대!

COLOR가 살아있는 칼라주보복합기

세계 최초 1m 20 출력

주보 2단 4면, 3단 6면, 4단 8면(복사, 출력) 가능

표준 소비자가 ₩1,595,000 D/C ₩605,000

교회 특별행사가 ₩ 990,000

인쇄 + 복사 + 스캔 + 팩스 = 하나로

동급 최고의 인쇄 속도를 지원하는 콤팩트한 디자인의

주보용 컬러 레이저 복합기

PRINTING SOLUTIONS
COLOR 3530 MULTIFUNCTION PRODUCT

PC형 주보 인쇄기

우리교회 주보 (인쇄복)

우리가 만들어요

- 순쉬운 작동
- 신속한 인쇄
- 저렴한 비용
- 고품질도의 인쇄물
- 컬러 인쇄로 OK
- 용지선택의 Free
- 뛰어난 내구성
- 다양한컬러인쇄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최초 칼라 복사기 A3 20매

200만원대 출시기념!

흑백기 가격으로 칼라기를 쓴다!

100대 한정판대실시 6,600,000 원 → 2,990,000 원

※ 빌려서라도 이번 기회에 꼭 구입하세요. (36개월 할부, 중고복사기 보상)



이제 교회도 FULL Color시대 임니다!! 세계최초 최대 1m 20cm 출력!

Color 200 A3 단면에 자동 양면 칼라 / 흑백 출력 복사 & 프린트!

G. 각자도너를 바비더우요! 사. 재비도너를 바비더우요!

주보 전도지 포스터 헌금봉투 소책자 교회요람 부흥회너 등 주일학교 유려원 초·중·고등부 홍보실 청년부 성가대실 교회사실 등

설지기, 중절기



중형제본&접지기

■ B5, A3까지 중형제본·접지
장·단·부·주보·교재·책자 등 20매 80페이지 가능

주보접지기

■ 23.4cm 주보 인쇄본에 접지 접어는 간격조절 가능 분량 120매까지



T-압착기 영광기업 칼라복합기로 사진, 그림, 글씨를 출력해서 13부터 다량까지 즉석에서 티셔츠, 쿠션, 모자, 가방, 태울 등에 T-압착기로 찍어서 여름성경학교, 교회 각종 행사에 필요한 모든제품을 직접 만들면 시간적 약은 물론 비용 면에서 말기는 가격에 10~90%까지 절약되며 우리교회만의 독특한 상품이 완성됩니다.

인사말씀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교회와목사님과 장로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좀 더 좋은 제품, 공금을 통하여 교회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 아래 교회의 입장에서 최선을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목사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빌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표이사 : 정학영 장로 올림 010-5779-0691



영광기업이 15여년을 보냈습니다.

-한편 판매한 제품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51-3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옆)

C·P : 010-5779-0691, 017-332-3217 Tel : 02)2065-1004 Fax : 032)544-0244

50여종의 교회에 필요한 사무기기가 전시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영광기업

Glory Enterprise Co.,Ltd.

1588-0691

www.jubo114.com

“감리교 해법 안보여 막장까지 갈 모양”

1년 7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태를 풀 해법은 없는 것인가. 감리교 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적극 활동 중인 소위 ‘감계 논객’들이 이 문제를 놓고 무려 3시간을 토론했으나 해법 없는 난상토론 막장까지 갈 모양이다. 막장이란 탄광에서 갱도 끝을 말한다. 감리교 사태가 해법은 없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갈때까지 가자는 조짐인데... 전국에서 감리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선총회’, ‘선재선거’보다 분화된 의견들 도출

20일 오후 5시 서울시 서대문구 병천동 감신대 제1세미나실에서는 작지만, 감리교 사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협성+목원+감신) 감리교 신학도 경신연대’ 주최 ‘기감사태 진단과 대안 신학도 대토론회’가 그것이다.

토론회에는 그간 감리교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저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글을 올려 논쟁하던 이들이 직접 발제자로 참석, 얼굴을 마주하며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지난 감목회장 선거와 관련 소송을 제기해 ‘선거무효’ 결정을 이끌어낸 신기식 목사와 김국도 목사 측 입장에서 끊임없이 글을 올려 온 정일왕 목사, 최근 현실 타협적 재투표론을 제기한 오세영 목사, 전감독 중앙위원인 허태수 목사가 그들이다.

토론에서는 현재 감리교 내부에 흐르고 있는 커다란 두 흐름, 즉 ‘재선거 후 총회’와 ‘선 총회 후 재선거’ 주장보다 분화된 의견들이 제시돼 현재 감리교의 난국을 풀 수 있는 하나의 해법



▲토론회 모습(좌로부터 신기식, 오세영, 정일왕, 허태수 목사)

총회든 재선거든 ‘위법’ ‘감리교 사태가 장기화 될 것’

이 쉽게 도출되기가 어려운 감리교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현 교리와장정 상 총회든 재선거든 ‘위법’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이대로 가면 ‘감리교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했다. 총회든 재선거든 현 교리와장정에 위배가 되므로 그 어떤 것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세영 목사는 “현재의 장정으로는 총회를 여는 것도, 재선거를 치르는 것도 불법적인 일”이라며 “따라서 법과 원칙만을 고수한다면 감리회 문제는 4년이 지나도, 아니 영원히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일왕 목사는 “감목회장만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므로 누구에 의한 총회든 불법이며, 직무대행에 의해 구성된 현재의 재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불법”이라며 “지금의 상황에서 교리와장정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되물었다.

허태수 목사도 김규현 목사가 대서한 발제문에서 “힘으로 밀어붙인 총회가 성사될 리 없고 (성사된다 해도) 표결결과를 승복하라는 강요 또한 성사될 수 없으며, 재선거를 먼저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라며 “기감사태는 이제 무정부형태로 장기화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신기식 목사, ‘선총회 후 재투

표형식의 재선거’ 주장

하지만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에 관해서는 ‘4인4색’이었다. 4명의 발제 중, 신기식 목사와 정일왕 목사는 선총회를 주장했다.

감리교유지재단이사회 외에는 모든 위원회가 죽어 있으므로 총회를 열어 행정복원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총회든 재선거든 법적 하자를 피할 수 없다면 총회에서 총의를 모으는 것보다 하자가 적은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두 사람의 견해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총회에서 재선거든, 재투표든, 임법총회 후 재선거든 감목회장 재선거 방안들을 결정

하고 결정된 대로 후속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것이 정일왕 목사의 주장이었다.

반면 신기식 목사는 가장 현실적인 재선거 방법으로 ‘재투표 형식의 재선거’를 주장했다. 하지만 신 목사는 “이는 피선거권 임의제한의 위법성이 있으므로 총회에서 사전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오세영 목사, 고수철·김국도·강홍복 3인 재투표 주장

선총회를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오세영 목사도 ‘재투표 형식의 재선거’를 주장했다. 오 목사는 한때 고수철 목사 캠프에서 활동했었다.

오 목사는 이날 통상 얘기되는 △‘지난 선거 때 입후보한 4명의 후보 중 사회법으로부터 후보자격 없음 판결을 받은 김국도 목사와 은퇴한 양총재 목사를 제외한 고수철·강홍복 2인에 대한 재투표’가 아닌 △‘김국도 목사 포함 3인에 대한 재투표’를 거론해 관심을 모았다.

오 목사는 “김국도 목사는 분명 장정 상 후보 자격이 안 되지만 현 감리교 사태는 그를 배제시키고는 해결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므로 이규학·직무대행은 고수철·김국도·강홍복 3인과 대화해서 3인을 후보로 놓고 재투표해 하늘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선거를 주장하는 전 감독의 중앙위원으로 재선거에 대한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기대됐던 허태수 목사는 “갈등의 주체들이 자기들의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생 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만을 피력해 아쉬움을 남겼다.

뉴스미션

‘눈 뜨면 비리’ 군수가 뭐길래... 장관보다 짹짹한 ‘소통령’

“장관은 물론 명예로운 자리죠. 그런데 길어야 1년이에요. 국회의 원도 좋죠. 그런데 부하가 없어요. 군수는 크게 돈 욕심만 안 부린다면 보통 8년, 12년 해먹어요. 그리고 수하에 적어도 500명쯤 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장관이 부럽지 않은 자리죠.” 군수와 부지사를 지낸 중앙부처 1급 공무원 L씨의 말이다. 서울에서 대학교수를 하다 군수가 된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는 ‘강진군에서도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는 책에 이렇게 썼다.

“고향에서의 군수 일은 영예롭고 보람찬 것임에 틀림없다. 조부님과 할머니와 아버지가 누워 계시고,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고향 땅을 위해 내 땀과 눈물과 열정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은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힘도 있고 보람도 있는 자리, 주민들이 친근감과 존경심을 담아 ‘영감’이라고 불러주는 자리, 지방행정의 꽃이라는 자리, 군수는 그런 자리다.

전국에 230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있고, 그 중 86개가 군이다.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군(郡)이라고 하면 군민 숫자가 5만5000명쯤 된다. 시(市)나 구(區)에 비해 인구는 적지만 면적은 넓다. 군 공무원 숫자는 대략 500~800명, 연간 예산은 국비·도비 보조를 포함해 2000억~3000억원 된다.

군수가 되면 관사와 공무자를 제공받고, 운전기사와 비서가 따라온다. 연봉은 약 7000만~8000만원으로 1억원을 넘지 않는다. 대신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돈이 1년에 3억원가량 된다. 이런 자원을 대수롭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규모로만 보자면 그런 평가도 가능하. 그러나 군수의 권한을 고려한다면 평가는 달라진다. 군수는 각종 사업 인·허가, 예산편성과 집행, 인사 등에서 전권을 행사한다. ‘지역 영주’나 ‘소통령’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방행정청의 꽃' 군수	
업무용 편의 제공	관사, 관용차, 운전기사, 수행비서
연봉	7000만~8000만원
연간 업무추진비	약 3억원
권한	인사, 예산 편성과 집행, 사업자 선정, 각종 인·허가 등
군 인구	5만5000명(전국 평균)
군 면적	666㎢(전국 평균)
군 공무원 숫자	500~800명
군 연간 예산	2000억~3000억원

지방 공무원 경력 20년째인 S씨는 “군수 재임기간에 10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이 서너 건씩 생겨요. 100억원 사업이라면 20%만 쳐도 (리베이트가) 20억원인 거죠. 마음대로 먹는다면 군수가 1년에 몇 십 억원은 갹길 수 있어요”라고 말한다.

군수는 한해 2000억~3000억원 예산을 주무른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비를 따오더라도 집행은 시장이나 군수가 한다.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군수다. 이 과정에서 비리가 끼어들 여지가 생긴다. “군수가 가장 신경쓰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이예요. 공천 받거나 또 공천을 하나 까. 공천 받기 위해 공천헌금도 주지만,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미끼로 인·허가권에 개입하기도 해요. 대부분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는 거죠. 의원 말을 들어야지 어찌겠어요.”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주민들에게 직접 얘기 듣고 상황 판단해서 예산을 조치할 수 있으니까. 가려운 데를 직접 긁어준다는 느낌, 그게 참 좋았어요. 국회의원은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군수라는 자리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핵심에 위치한다. 유재일 대전대 지역발전연구소장(정치언론학과 교수)은 “군수의 위기는 지방자치의 위기”라며 “경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정치, 시민단체, 언론, 사정기관 등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중 기자

세계산업인대회 18개국 1,500명 참석

복음엘리트를 세워 1인1구와 OMC 장학사업 후원회원 자원을

제13차 세계산업인대회가 지난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산업인들이 복음 확립을 위한 함축으로 이루어졌으며, 21일은 본대회로 산업인이 시작해야 할 필수사명의 의미를 더욱 더 알고 마음에 품는 기회가 되었다.

총 참여인원은 1,500명으로 해외 18개국에 162명, 국내 1,378명의 인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성황리에 마쳤다.

해외 참가국으로는 미국, 일본, 호주, 중국, 필리핀, 대만, 오스트리아, 인도, 카자흐스탄, 케냐, 케냐, 프랑스, 홍콩, 뉴질랜드,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영국 순으로 참가하였다.



본 대회는 세계산업인이 모여 각 역할별 포럼과 지역별 모임을 통해 각 지회에 분포된 산업인이 하나가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다.

다.

또한 후대를 살리고 복음엘리트를 세우는 1인 1구와 OMC 장학사업 후원회원 모집의 첫 시작

을 하였으며 모집 결과 1000여명의 후원회에 가입하여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램네프가 연간 약200명이 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게 되었다. OMC 장학사업후원회원 모집은 앞으로 계속되어 갈 것이며 많은 관심 가져줄 것을 주문하고 해택 받는 램네프가 더욱 많아 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했다.

이번 제13차 세계산업인대회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산업인들의 복음의 장이었으며, 산업인들이 현장에서 복음으로 시작해야 할 필수 사명인 의미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을 내렸다.

세계 2위 선교대국 한국... 20대 파송자는 얼마나?

1901년 당시 80%의 한국 교회가 자립 상태였다

젊은 선교사들의 열심과 패기로 네비우스 원리는 확산

아펜젤러, 언더우드, 스크랜턴 등 이름이 알려진 서양 선교사들은 놀랍게도 20대 나이에 한국에 왔다.

지난 20일 열린 제5차 세계선교전략회의 예비회의에서 미전도종족선교연대 정보에 선교사는 “초기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서양 선교사들은 대부분 20대였다고” 말하고 “언더우드 선교사

가 26세에 한국에 왔고 아펜젤러 27세, 알렌 27세, 게일 25세, 스크랜턴이 29세였다”고 밝혔다. 그들은 왜 젊은 나이에 한국을 선택했을까. 정 선교사는 연세대 서정민 교수의 연구를 인용, “당시 선교 지역으로서 한국은 3급지였다”고 말했다. 100여년 전 서구 선교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1급지는 중국이었고

두 번째가 일본이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험 많은 선교사들은 1, 2급지로 향했고 한국에는 상대적으로 선교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선교사들이 도착했던 것이다. 이들에게 교회 개척과 선교 방법론은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 이는 네비우스선교정책을 적극 수용하는 계기가 됐다. 이 선교정책은 자립(自立)·자전(自傳)·자치(自治)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한국 상황에서는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된 선교 원리다.

젊은 선교사들은 1890년 중국

산동성 선교사로 활동하던 주창자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를 초청해 강의를 듣는 등 한국 적응을 위해 힘썼다. 결국 젊은 선교사들의 열심과 패기로 네비우스 원리는 확산됐고 1901년 당시 80%의 한국 교회가 자립 상태였다고 전해진다.

현재 2만1000여명 규모의 한국 선교사 가운데 20대는 얼마나 될까. 아쉽게도 이에 대한 통계는 전무한 상황이다. 다만 단기로 활동 중인 선교사 상당수가 20대라는 게 선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신상목 기자

한국 교계 최대 파이프오르간 봉헌 시연회

크리스천세계선교센터(총재 김성현 박사)는 세종문화회관에 다듬가는 초대형 파이프오르간을 설치하고 국내외 음악인들과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지난 24일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파이프오르간 시연회를 개최했다. 연주회를 위하여 독일의 유르겐 쿠르스바 교수와 최주용 강사(이화여대, 한양대, 가톨릭대, 서울신대 출강)를 특별 초청되었다. 지휘자 채지는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상명대학원 출강)와 바리톤 이규선 교수(경원대 출강)도 함께 초청되어 음악회를 빛냈다.

세계센터에 설치된 파이프오르간은 오스트리아 리거(Rieger)사의 작품으로 국내에 다섯 번째로 설치되었다. ‘리거 파이프오르간제작 유한책임회사(Rieger Orgelbau GmbH)’는 1845년 오스트리아 에거론도르프(Jaegendorp)에서 오르간 제작을 시작한 이래 160여 년 동안 전 세계의 주요 연회장, 교육기관, 유명성당 및 교회당에 2,000여 대의 크고 작은 오르간을 제작한 오르간 제작의 명가다.

“최고의 악기로 가장 아름다운 음률로 찬사와 감동의 장이되었다.”

리거사가 제작한 오르간은 설계를 포함하여 1년여가 소요됐으며 설치 및 보이싱, 조율기간은 약 5개월이 걸렸다. 이를 위해 대형컨테이너 5대로 오르간부품들을 운송해 왔으며 현지 기술자 10명이 동원되었고 국내의 전기 및 건축 기술자들과 컨테이너 하역인원으로 약 30명이 동원되었다.



종교시설 중 대한민국 최대 파이프오르간 시연... 주민과 호흡할 것

특히 예배음악에 사용될 동오르간의 디자인은 성경말씀을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형상화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총명한 역사와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이미지와 더불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마 13:47)라는 말씀처럼, 파란 그물모양으로 아직

수 있도록 해 참석자들로 큰 호응을 받았다.

동 행사를 주관하는 김성현박사는 파이프 오르간 시연회의 목적을 최고의 악기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더불어 세계적인 성장해 가고 있다. 파이프 오르간에 붙여진 이름은 “큰 하늘”이며, 큰 하늘 시연회에 붙여진 주제는 “큰 하늘과 작은 하늘”이다. 김 박사는 “때때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우리는 ‘큰 하늘’이 우리의 예배를 더욱 경건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장엄하게 승화시켜 줄 것을 바라면서, 이 파이프 오르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면서, “이 악기가 복음증재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큰 쓰임이 되기를 원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날 장엄하고 웅장한 80음색의 다양한 음률은 실로 감동적이었으며, 연주자의 현란한 손놀림과 다양한 음색은 파이프 오르간만의 특색이라 하겠다.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도와줄 하나님을 바라보라

성경 : 시편43편 찬양 : 424장

본 시는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간구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자신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에 주시어 자신이 다시 하나님의 여호와와 전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라고 선포합니다.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고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이 계시기에 믿음의 눈을 들어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성경 : 시편44편 찬양 : 427장

본 시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시인의 절대적인 신앙과 자기 민족에 대한 뜨거운 민족애가 구구절절이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는 진술하고도 절박한 표현을 통해 강하게 표출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은 비천한 사람이지만 지라도 오직 주의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5절을 통해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오직 주를 의지하고 주의이름으로 모든 문제와 주의 이름으로 아픔들을 밟고 뛰어 넘어 승리하는 주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말 좋은 가정

성경 : 시편45편 찬양 : 507장

본시는 왕의 축혼가로 불리는 제왕시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노래라는 표제대로 시편의 아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시편기자는 왕의 결혼식을 아름답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사람은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관의 붓과 같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좋은 사람은 좋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마다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되어 좋은 말이 넘쳐나는 좋은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나 중에 만날 큰 도움

성경 : 시편46편 찬양 : 446장

본 시는 히스기야 통치 당시 유다가 앗수르 왕 산해립의 침략을 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적들에게 포위당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요 환난중에 만날 큰 도움이므로 바닷물이 흥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 할찌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산만한 문제가 있을 지라도 산만한 문제를 보는 눈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기자처럼 ‘나는 두려워 않는다’ 라고 선포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주님 안에서 용기와 힘을 얻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왕을 찬양하라

성경 : 시편47편 찬양 : 40장

본 시는 매년 초하루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불린 찬송시입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촉구합니다. 1절과 6절을 보면 “너희 만민들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찌어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환경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 넘어 우리 왕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온의 가정

성경 : 시편48편 찬양 : 432장

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시온’을 노래합니다. 2절을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어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시온’이란 일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키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선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여 “이 하나님은 영영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라는 14절의 시편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시온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온의 영광을 원한다면

성경 : 시편 48편 찬양 : 248장

본 시는 고라 자손의 찬양시입니다. 이러한 본시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시온에서 부르는 영광의 노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시인은 시온을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란 일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키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선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곳이 시온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곧 시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 시온의 영광이 임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과 축복을 원한다면

성경 : 시편 49편 찬양 : 342장

시인은 부자가 모두 악한 것은 아니나 정당하지 못한 부를 향유하는 자들은 악하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죽음과 함께 종말을 고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죽음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6절-7절에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궁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부가 아무리 소중하다 하더라도 죽어서 함께 할 수 없는 물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그 이후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기적과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1)

성경 : 시편 50편 찬양 : 369장

레위 성가대 대장인 아삽이 지은 본 시는 외적인 형식만을 갖추고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없는 제사 곧 내면적인 준비 없는 재물로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책망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가르쳐 주는 지혜시입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재물로는 책망할 것이 없지만 다른 것으로는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형식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고 온 맘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2)

성경 : 시편 51편 찬양 : 338장

본 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때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지은 회회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호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다윗은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즉 상한 심령 곧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를 넘어 미래를 디자인 하라

성경 : 시편 52편 찬양 : 344장

본시는 사울에게 쫓겨 피신 생활을 하던 다윗을 도와 준 제사장 아히멜레과 그 가족 85명이 도역의 밀고로 몰살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이 불의한 자 때문에 희생당한 데 대해 통분을 감추지 못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핍박받는 의

인들은 비록 현재는 고난을 받으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마침내 승리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8절을 보면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현재의 불의한 자 때문에 근심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면서 장차 올 기쁨과 승리의 삶을 기대하며 현재를 넘어 미래를 디자인하기를 소망합니다.

경고합니다

성경 : 시편 53편 찬양 : 511장

본시는 14편과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곧 악인이며 그들의 종국은 영원한 형벌인 뿐임을 경고하는 시입니다. 시편기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시편14편에 이어 또 한 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은 무엇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을 때 채움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시편기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물질과 권력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환난과 곤의 날에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성경 : 시편 54편 찬양 : 484장

본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절체절명의 한계 상황 속에서 오직 성실하게 공의로 보응하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자신의 구원자라는 확신에 근거하여 원수의 멸망과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힘으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령의 기도일수록 역사하는 힘이 큼니다. 우리들의 가정 역시 급박한 상황 일수록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강령의 기도를 외면하지 못하는 분임을 믿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분노와 슬픔을 당했을 때

성경 : 시편 55편 찬양 : 342장

본시는 다윗이 친구들로부터 배신당해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한 시입니다. 인간적으로 믿었던 자신의 친아들 암살통과 자기의 친구이자 모사였던 이히도벨로부터 배신당했기에 느껴야 했던 다윗의 쓰디쓴 비애와 뼈아픈 절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내게 고통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마다 분노와 슬픔을 당했을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없지만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4월이 오면

박영남

때나간 친구여,
봄은 그냥 오는 게 아닌가보다

내가 떠난 후
엄동은 죽을 같은 상처 하나로 버텨온
수많은 날들
그들진 응달에 숨어
죽어 없는 듯
낮게 누워 생활보다 아픈 세월을 먹고

꽃들은,
저렇게 피를 토해 내는거다
사람들은 꽃을 화사하다고 말하지만
화사함이 아니라 상처요
웃고 있는 게 아니라
아프게 흐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봄은
발밑에 수많은 이웃의 주점을 딛고
눈물같은 비를 뿌리며
꽃샘바람 몰고 오는 것이다

하여,
이 땅에도
역사의 봄이 오고 있는가
살아남은 자여, 두 눈 부릅뜨고
쿵쿵거리는 가슴으로

아프게 봄을 맞고 있는가

우리가 알게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 로마서 8 : 28)



사론지구촌예술교회 17주년 기념 백혈병 환우 위한 가스펠 콘서트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

매혜시여 : 용마리아목사

신지모

2부MC



강신숙 목사
사론교회 담임
강신숙문화예술신학원장



서경숙 목사
사론교회 담임
신지모



김견면 목사
사론교회 담임
목도



박원연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종미 목사
백혈병 환우회



김동현 선교사
기독교



김진경 목사



장봉식 청문
사론교회 대표

- 일시 : 2010년 5월 25일(일) 오후 3시~5시
- 장소 : 한국기독교교회관 대강당 02-763-9746
- 주최 : 사론지구촌예술교회 010-9049-4846, 사론조경 010-6206-4846
- 주관 : 강신숙예술신학원
- 협찬 : 애국TV방송국019-392-4924, 지저스TV인터넷방송국, 아사모문화예술선교회, 신원(국민, 복음, 월드미션, 기독교임스, 들소리, 기독교여성) 큰기쁨기독원 일자리 창출선교회, 이름음반, 복지선교회, 하니복음선교회, 영화촬영감독 정석훈안사016-313-6277, 기독교연예인부흥사선교회

사랑의 성금 10,000원



기독교연예인 부흥사 선교회 5월 행사일정



이현순 율동단

이오영 율동단

고연숙원장과 이예라글로브 전영율동단



유영자 구혜경 복지선교회무용단



전유재 단장과 오소나 반단 무용단



김이유리 강도사

5월 3일~7일 : 지유 기적 산상성회 장소-생명수기도원 오전11시, 오후 3시, 저녁 8시
5월 8일 : 호사랑 어버이 찬지 장소-성남찬양교회(임원석목사) 설교-홍마리아목사, 오전 11시
5월 25일 : 백혈병환우를 위한 콘서트 장소- 기독교교회관 대강당 오후 3시-5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든자여 일어나라!(요 11:4)

사론지구촌예술교회 17주년 및 백혈병 환우위한 기적의 콘서트



강신숙 문화예술신학원 10주년 기념 기독교연예인 부흥사 선교회



목회자칼럼

(1) 권면위원(勸勉委員) : 본회의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어 불평을 품거나, 불순종하거나, 분규를 거듭할 경우 등등, 특정사건에 대하여 권면할 내용까지 본회의가 작성하여, 그전달과 회유를 위해서 파송하는 위원이니, 그 권한이란 오직 정해진 대로 권면하여 회유할 뿐이요, 다른 권한이 없다. 만일 듣지 아니하면 듣지 않더라는 보고를 행할 뿐이다.

(2) 수습위원 : 수습위원회 실은 권면위원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권면위원은 권면 내용까지 본회의가 정해주었으나, 수습위원은 아무런 작성 없이 임의로 수습활동을 하는 일이다. 즉 이렇게 권면할 수도 있고, 저렇게 권면할 수도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수습방안을 가지고서 접촉할 수가 있다. 그래도 권면위원과 별로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수습위원들도 권면위원들의 경우와 같이 들을 자가 들어주지 아니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 다른 권한이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권면 위원들처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칠 뿐이다.

(3) 전권위원(全權委員) : 전권위원이란 본회의가 어느 특정사건을 위해서 위탁(委託)할 때에 반드시 그 권한 범

위(範圍)를 정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권한이란 문자 그대로의 결체가 가지는 전체권한(全體權限)에 다행할 수 있다고 보는 자들 때문에, 혼란이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권한이란 권면이나 수습활동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불복(不服)할 경우에는 우선 어떠한 임시처결이라도 내릴 수 있는 권한(權限)이 있다.

그러나 전권위원회도 다른 모든 위원회와 같이, 마땅히 전체회의가 다룰 의안 중에서 능률적(能率的)이요, 효과적 인 처결을 위한 예비적 심사와 준비적

든지 정정할 수가 있다. 우선 처결할 임시권한을 부여하는 전권위원회도 위원회요, 본회의일수가 없다. 본회의의 사무를 능률적이요 효과적인 방법으로 처결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 위원회 제도라면, 전권위원이라고 해도 예비적이요, 준비 적인 단계의 임시 처결 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다.

(4) 실행위원회 : 본 위원회는 지도위원과 총회임원과 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

임무는 ① 총회정책을 연구하여 총회

하고, 실행위원회가 심치어는 총회정치와 규칙까지 임의로 개정, 결의하여 유인물로 합법적인 것 같이, 전국 교회에 배포하는 곳지 못할 일들도 있다하니, 헌법과 총회를 무시하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부끄러운 사안인 것이다. 이러한 불법처사로 총회의 화합을 깨며, 전국교회에 혼돈을 가져오게 하는 처사는 용납(容納)될 수 없는 위헌행위(違憲行爲)인 것이다.

흔히 노회장 연석회의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제도권내의 기구도 아니요, 의결기구도 아니며, 처리 회는 더욱 아니다.

노회장 연석회의에서 아무리 결의하여도, 그것은 뜻을 같이 모은다는 정치적 효과밖에 없고,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회장 연석회의에서 결의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협의기구)는 필지 불라도의결기구(아님), 결의했다해도, 그것을 빈자하여 마치 구속력이 있는 결의인양, 총회임원 및 전국 노회장으로 조직된 실행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전국교회에 결의사항을 고지하고 지시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월권(越權)이요 불법행위(不法行爲)이다.

다음호에 계속



이원석 목사

본지 상임이사

막장 사회에 촛불집회를 하자



천현옥 목사 (코랏 편집인)

기고

막장이라는 말은 경도의 막다른 곳을 말한다. 갈 데까지 간 것이다. 우리 사회가 그렇고 지구가 그런 것 같다. 필자는 드라마를 보지 않는다. 아내가 불러치면 다 거짓말인데... 하며 일어선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나 막장 드라마는 아니어야 할 텐데 막장이 아니면 시청률이 떨어지지 그러면 광고수입이 줄어드니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보다. 이상하다. 막장을 비판하면서 막장을 즐긴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반영되고 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하얀 난투극, 싸움질이라는 단어부터 떠오르게 한다. 공중 부양이라는 유행어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기물을 파손한 의원이 무죄 선고를 받고 경찰관을 때려 10일간의 상해를 입힌 사람도 무죄가 된다. 빨치산은 진정한 통일세력이고 북침이 맞다고 가르친 교사도 무죄가 된다. 요즘은 막장 판결이 대세이다.

검찰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검사가 성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런 관행이 무려 20여 년간 이어져 왔다는 한 건설업자의 폭로는 검찰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태세다. 검찰이 저지르는 범죄 또한 만만찮게 신문을 도배한다.

교사들도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고 교육계의 썩은 바리가 코를 찌른다. 큰 소리는 혼자 다 치면서 명단은 공개하지 말라고 한다. 공무원도 단결권을 행사한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 스스로 머슴이라고 했던 것을 내용맹이진 것은 아주 오래 전이다. 가장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종교계는 어떠한가? 불교계는 접어두고 우리 인을 들여다보자. 본지 제휴사 뉴스미션에 의하면 4월 22일 오후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에 한 통의 우편물이 배달됐다.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 앞으로

보낸 우편물에는 19일자 논산 연무우체국 소인이 찍혔으며, '충남 논산에서 이민성 보냄'이라고 기록돼 있었다고 한다.

봉투 안에는 '타살 통지문'이라는 문서가 들어 있었다. 17일 작성한 것으로 명기된 통지문에서 발신자는 "28일까지 총회를 소집해서 감리교 사태 해결 못 볼 시, 이후로 당신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죽이겠다."고 썼다는 것이다.

발신자는 이어 "거짓말인가 행동으로 보여 주겠다"면서 "죽음에 무덤을 파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발신자는 '2010년 4월 17일 충남 논산에서 가명 이규선'이라고 통지문을 마무리했다고 전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세상의 하찮은 것들에 목숨을 걸며, 거짓말을 밥 먹듯 해대고, 이제야 타살까지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내는 세대가 바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고 여기는 교회라니 정말 막막한 막장이다.

지구는 안정하신가? 올해 들어 4월에 폭설이 내리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꽃피는 4월의 봄에도 동북을 벗지 못하며, 수없는 지진이 일어나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폭설로 홍수로 몸살을 앓고 화산이 폭발하여 항공대란이 나는 혼란에 빠져 있다.

기독교의 막장은 말세라는 경도의 막다른 곳이다. 귀 있는 자는 듣고 눈 있는 자는 볼 것이다. 깨어 있는 자만이 그날의 영광을 볼 것이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기회를 얻는다고 했다. 막장 사회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오려라 막장 사회를 향하여 진리의 촛불을 하나 톨 켜 나가는 진정한 촛불집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한국크리스천 문학상 및 크리스천문학 45호 출판기념회

크리스천문학 금번 45호 출판을 기념하고 신인상 수상식이 지난 달 15일 오후 5시 서대문 연희교회에서 황계정 회장과 외 한국 크리스천 문학을 대표하는 문인들이 성황을 이룬 가운데 치러졌다.

1부 황 회장의 사회로 연희교회 여성 중찬단의 특송에 이어 조규호 목사의 '하나님의 전령'이라는 제목의 설교 후 2부에는 사무국장 진명숙의 사회로 크리스천 우수 작품 선정 심사위원 보고와 우수작품상이 있었으며, 금번 처음 실시하는 크리스천 문학상에는 단국대에서 오랜 문학 강의를 하시며 후학들을 길러

내며 금번 '노근리 사람들'이란 제목의 소설을 쓴 이동희에게 돌아가게 되었으며, 이어 김봉균의 축사와 수상 축송, 수상 소감, 꽃다발, 증정 상임이사 심혁창 장로의 광고에 이어 3부에는 시 낭송회로 이어 졌으며 회원 간의 교제와 우의를 다졌다.

우수한 작품 1편을 엄선하여 시상하기로 가결 하는 등 앞으로 한국 크리스천 문학의 발전과 변영을 기약하며 관심 있는 크리스천 문인들이 계속 나오기를 기대하며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요청했다.



국민정직운동연합(대표회장 신상열)은 지난 4월 20일(화)오후6시 국방부내 육군회관 무궁화대홀에서 정직운동 세계 선언대회 발대식을 가졌다. 동연합은 1992년 좋은나라 운동본부로서 정직운동을 시발로 2010년 현재 국민정직운동연합으로 성장해 오면서 국내외적으로 크게 활동하는 연합회이다.

사무총장 사회로 개회가 선언되고 동연합 세계 선언대회 발대식이 진행되어 국민의례가 있는 후 임영술 운영회장의 경과보고와 내빈소개가 있었으며, 신상열 대표회장은 동연합 정직운동 각 분야에서 일할 사역자들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 대표회장은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정직해지지만 하면 세계 초일



정직운동 세계 선언대회 발대식

류 국가, 일등 국민이 될 수 있는 좋은 조건(기후, 토양, 물)들이 많으며 또한 인적자원(지능, 지식, 기술, 체력) 및 근대화된 산업시설과 생산기술 능력이 충분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체감 행복지수가 바닥을 맴돌고, OECD국가 중 국가신인도마저 최하위 수준임을 말하고, 원인은 우리 모두의 정신적 때문이며, 세계인

의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와 의심과 조소의 대상으로 견제와 우려 속에 무시당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정직해지지 않고는 과학이 선진화되고, 산업이 발달하고, 군사적으로 막강한 나라가 된다 해도 살기 좋은 문화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대광교회**로 오십시오!!

예배안내			
예배	시간	장소	비고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30	본당	성경강해
주일1부예배	주일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주일 오전 10:00	본당	열린예배
주일3부예배	주일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특별예배로 들릴 수 있음
주일5부예배	주일 오후 4:00	본당	청년예배
수요기도예배	수요일 오후 9:00	본당	철야기도회
각구역예배	각 구역별 지정시간	각구역별 요구가정	매월 마지막주는 연합예배

주일학교예배안내			
부서별	시간	장소	대상
유치부	주일 오전 11:30	본당 지하 1교육관	취학전 아동
유년부	주일 오전 9:00	본당 지하 1교육관	초등학교 1~3학년
소년부	주일 오전 9:00	별관 교육관	초등학교 4~6학년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별관 교육관	중학생 및 동급연령
고등부	주일 오후 9:30	별관 교육관	고교생 및 동급연령
청년 2부	주일 오후 4:00	본당	19~24세 미혼
청년 1부	주일 오후 4:00	본당	25세 이상 미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광교회
Presbyterian Church

대광교회 담임 엄영수 목사
451-061 안양시 동안구 광양동 1409-10
TEL. 031-384-6826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본지, JTN방송 논설위원)
부설/평안 E.C.I
-무료 생활영예회화 강습.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상설 알뜰바자회 주관/여전도회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평안교회로..."

'새 생명의 가운데 사는 천국복음을 증거합니다.
죽은 영혼, 침체된 영혼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확신합니다.
참 진리의 목마름을 느끼는 곳에 찾아옵니다.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곡리 55-6
전화 041)356-0644, 팩스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P 011)9027-9712

대한예수교 장로회 바울교회



담임 **고승곤** 목사

- ▶하나님의 손안에 -저자
- ▶하나님 나라의 비밀 -저자
- ▶국제연합신학연구원 교수
- ▶다바르 성경연구원 원장
- ▶마르티스(Witness)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JTN방송 저지스티임즈 운영이사)

서울시 송파구 가락2동 141-2 /B1
(쌍용A 1차 205동 후문 맞은편)
전화 02)408-9030, 011)9082-9030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박완근** 목사
(본지 운영이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태국 소수부족 흑몽족 부부의 초대

동거한 지 20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며, 흑몽족 부부는 현지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초청했다. 비록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얼마 안 되지만, 선교사들을 초청 예배를 드리며 결혼을 하겠다며 초청의 뜻을 밝혔다. 선교사가 결혼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어 주겠다고, 포즈를 취해 달라 하자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쑥스러워 한다.

흑몽족의 결혼 피로연은 물 붓고 쪽 삶은 소고기 국밥 한 가지에 100여명의 마을주민들이 모여 들었으며, 집작현데 소 한 마리는 잡은 모양이다. 모처럼 고기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라면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한 사람씩 받아 들었다. 함께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전 선교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마을에서 산동성을 따라 30



흑몽족 선교사 초대 결혼잔치

여기로 떨어진 마을에 화전을 일구어 살아가는 흑몽족 형제들이 산골짜기에서 20~30여명이 모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내친김에 달려가 보니 비포장인 데다 바짝 마른 진흙 길에 뽀얀 진흙 먼지가 시아를 가린다. 4륜구동 차도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는데

힘들어 한다. 불교나라인데도 이 마을은 절간 하나 없는 마을이며, 200여 가구가 살고 있다고 한다. 이들 몽족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처음 이웃 마을에서(30여 키로 떨어진 곳)전도를 받아서 모이기 시작하였지

만 사역자도 없고 성경책도 없이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교회를 지어주길 바라며 교회 터를 넓게 닦아 놓고 기도 하고 있다며 교회 터로 선교사를 인도한다. 좁은 길에 차를 세우고 잠시 언덕에 올라 발걸음을 멈추고 넓게 닦아 놓은 교회 터 위에서 기도를 드리고 돌아서는데 가슴이 뭉클한 게 지구 눈물이 고이기만 한다.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데, 오~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추수할 일꾼을 부르는 소리로 귀를 울리지만! 그 음성을 들을 귀 있는 자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에 선교사역을 하면서 다시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예배당 건축비 1000~1500만원
연락처 070-8232-1091
태국 치앙마이 전승주 · 손호자 기자

예장 백석총회 필리핀선교지부 총회 개최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교단(총회장 유관석 목사 / 수원명성교회)소속 필리핀선교지부에서는 4월 26일(월) 오전 10시 30분 마닐라 올티가스 소재 한마음교회에서 동지부 총회를 개최 했다.

이날 정오상 선교사(동지부 서기)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강중희 선교사(동지부 증경지부장)가 기도를, 신준범 선교사(동지부 회계)가 성경봉독(사 60:1-3)을 하고, 홍운 선교사(동지부 지부장)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선교사'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나춘근 선교사(동지부 부지부장) 축도로 마쳤다.

2부 총회는 홍운 선교사(동지부 지부장)가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경철 선교사(동지부 부서기)의 개회 기도와 김종현 선교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임원선거에서 지부장 선출에 대해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먼저 신준범 선교사(동지부 회계)는 신임 지부장의 자격요건에 너무 엄매이지 말고 투표로 지부장을 선출하자는 의견을 내었고, 이경철 선교사(동지부 부서기)는 "지부 모임을 활성화 시키고 지부에 분이 되기 위해서라도 지부장 선출 자격요건을 강화시킨 지부 세부세칙이 작년에 만들어져 이미 총회선교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화합차원으로 좀

지만 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내세워 투표로 말고 나간다면 앞으로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운 직전 지부장은 "지난 2년



예장 백석총회 필리핀선교지부 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결국 10분간 정회를 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강중희 선교사가 이번엔 지부장 후보를 양보하고, 올해 지부장 선출 자격요건을 갖춘 부지부장 나춘근 선교사를 지부장으로 자동 추대하자."는 안에 회원 전원의 기립박수로 신임 지부장을 나춘근 선교사로 선출하였다. 기타 임원선출은 신임회장과 발전위원회에 일임해 심의 결과 감사 홍운 선교사, 총무 강중희 선교사, 서기 이경철 선교사, 회계 신준범 선교사가 각각 선출되었다.

안건토의에서는 김종현 선교사-지부위원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 김영미 사모(신준범 선교사)-1년에 한번 사모 선교사 친선 모임 및 수양회 갖기, 강중희 선교사-애경사 비용 현실화하기 등이 나와 임원회와 발전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여 임시총회 때 최종 결정기로 하였다.

홍운 직전 지부장은 "지난 2년

간 주님의 은혜가운데 지부활성화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린다."고 했으며 나춘근 신임 지부장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필리핀선교지부가 지부 화합과 앞으로 더 큰 발전을 위해 세워진 규칙을 잘 존행하고, 회원들 간에 우애를 돈독히 하며 선교활동에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힘쓰고 총회선교위원회와 세계선교사위원회와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지부 총회를 통해 극도의 긴장 속에서도 성령의 주관하심을 느끼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난 2년간 물심양면으로 수고해준 구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신임 임원들에게 파이팅을 기대해 본다.

이경철 기자(필리핀 지사장)
(선 교 흠 피 www.pwmc.net, centra9191@hanmail.net)

필리핀 선교사, 목회자를 위한 피스메이커 임상훈련



필리핀 선교사, 목회자를 위한 피스메이커 임상훈련을 마치고

교단 및 단체협의회회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정부와 교민들 간에 가교역할을 감당하며 화평을 이루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주비 한국선교사 단체협의회(이하 한선협)가 주최하고, 한국피스메이커(KMP) 주관, 남서울교회(담임 이철 목사) 후원으로 피스메이커 지도자과정은 지난 달 8일-10일 마닐라 퀘존지역 Great Eastern Hotel에서 주비 한국 선교

사들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이날 이봉준 선교사(동협 수석 부회장)의 인도로 예배가 진행되어 나춘근 선교사(동협 운영위원장)가 기도를, 김명하 선교사가 성경봉독(마 5:9)을 하고, 정두해 목사는 "화평케 하는 자"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동협회장 송성호 선교사가 광고를, 여상일 선교사(동협 증경회장, PTS 이사장) 축도로 마쳤다.

이날 이철 목사(피스메이커 한국지부장, 남서울교회)는 피스메이커에 대해 소개하면서 "선교지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물질이나 현지인들과의 문제가 아닌 선교사들 간의 갈등이 제일 큰 어려움이었다고 토로 했다"는 말을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직도 우리 안에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화평하지 못하면 어떻게 선교를 하겠는가? 한국피스메이커 상임총무를 맡고 있는 여삼열 목사는 '화평케 하는 자(켄 산데 저)' 훈련교재를 편집한 '화평으로 심는 자'라는 교안을 중심으로 열면 강의와 임상실현을 해 주었다. 각 조별로 남서울교회에서 같이 참여한 임상훈련 조장들을 통해 선교사들의 갈등 사례 정리 발표문을 작성하게하고 실질적인 발표와 토론의 장을 가

졌다. 피스메이커 지도자훈련 수료식을 은혜가운데 마치고 한국피스메이커에서는 한선협 회장인 송성호 선교사를 필리핀 지부장으로 임명하고, 성경적 원리를 알고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를 귀히 여기신 것처럼 선교사들 간의 갈등과 부부선교사간의 갈등을 잘 조재하고 각 선교지에서 화평케 하는 사명 또한 일반선교사역만큼이나 중요함을 깨닫는 피스메이커 지도자 임상훈련이었다. 참가자들은 필리핀 각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계속 교제를 나누기로 하였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최한 한선협을 주관한 한국피스메이커와 후원한 남서울교회에 깊은 감사사를 전했다.

필리핀지사장 이경철
(선 교 흠 피 www.pwmc.net, centra9191@hanmail.net)

전세계 크리스천 팝의 여왕, 에이미 그랜의 새 앨범

그래미 어워드 6회 수상, 도브 어워드 22회 수상, 총 3000만장 판매고를 기록한 명실공히 미국 CCM계의 살아있는 전설 에이미 그랜(Amy Grant)이 6년 만에 새 앨범《Somewhere Down the Road》를 발표

했다. 에이미 그랜은 1977년(당시 17세) 첫 앨범《Amy Grant》을 발표하고, 1991년《Heart In Motion》이 엄청난 성공-판매고 500만장, 빌보드 200: Top 10, 크리스천 차트 1위, 빌보드 핫 100 1위-를 거두면서 CCM계의 최정상 여성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CCM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자리

잡혀 있다. 팬들을 비롯한 비평가들은 에이미를 "크리스천-팝의 여왕"이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여왕이라는 수식어보다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단순한 음악적 활동 뿐 아니라 NBC Show, CBS Early Show, Fox&Friend Show 등 각종 쇼에 출연, 배우와 같은 다른 분야에 도전하며,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갔다. 올해로 데뷔 33년을 맞은 그녀가 6년 만에 팬들에게 선사하는《Somewhere Down the Road》는 삶을 노래하는 가사와 그녀만의 깊고도



올림 있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그녀의 입지를 확인시켜 주는 앨범이다. JTN방송 & 뉴스미션

대한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 선교교회

담임 현 병 우 목사

(본지, JTN방송 부사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H.P 011)9710-9190

주일예배 : 오전 11시 / 오후 찬양 2시

수요예배 : 오후 7시

금요철야 : 오후 9시

월·화 영성사역 : 오전 11시 / 오후 7시

임마누엘 선교교회

부천역 < > 공평산 아파트

상동 < > 복사동 아파트

상동 < > 복사동 아파트

임마누엘 영성원

☎. 011-9710-919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일교회

담임 이 이 중 목사

(본지, JTN방송 상임이사)

원로 : 김영환 장로

장로 : 우만호 장로, 신호균 장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전화 031)714-1426, 7236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표어 : 말씀이 응하는 교회(눅4:21)

하나님이.... 모든 학문과 재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단1:17)

담임 고성규 목사

(본지 운영이사)

교회약도

신천동

시흥시청

소래중학교

다니엘교회 은행동 250-1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50-1

http://daniel.onmam.com

교회 031)313-3454, 312-2613

삶을 변화시키는 글로벌시대 인재양성 및 복음화를 위한

혁기적인 말씀축복 [전도 집중] 특별집회

말씀 집중

독서 집중

부흥회+전도집회+재직세미나+교사세미나+수련회 효과

집/회/특/징

· 모든 전도 프로그램, 교회성장 프로그램에 날개를 달아줌.

· 말씀으로 무장할수 있어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음.

· 목회전반에 큰 활력을 받음(전도, 기도, 설교, 교육)

· 전도에 자신을 갖게 되며, 헌신, 충성의 사람으로 변화됨.

강/사/특/징

♡ 확실한 동기부여

♡ 열정과 감동이 있음

♡ 삶의 희망과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함

주관 : 말씀사랑운동본부

후원 : 지저스 타임즈

집회유치문의

☎ 041)904-0675

011-9119-7661(직통)

강사 김동기 목사(합동)

말씀사랑운동본부장

전국 교회 기도원 집회 전도 집회 목회자 세미나, 교사세미나, 수련회, 각 기관 특강

※ 집회를 초청해 주신 전국교회 기도원, 각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겸손히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여 성기겠습니다.

“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칼럼

KOSTE와 올라살 운동 설립 및 국제대표, 세계선교사회(WKMF) 공동 회장 역임, 인생을 살다보면 엄청난 사건들만이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줄 아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집에 불이 나거나 가족 중의 누가 암에 걸리거나도 하면 가족 모두가 마음과 뜻을 합하여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은 무시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일이 서로의 감정대립으로 발전하여 결찰을 수 없는 불길로, 해결할 수 없는 미증으로 빠지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모래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했다

무전여행으로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미 대륙을 도보로 횡단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걷고 또 걷다가 피곤에 지치면 자동차를 얻어 타기도 하며, 목적이인 서부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각 언론사에서는 불굴의 의지로 대륙을 횡단한 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륙 횡단 중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대륙을 횡단하는 중에 작렬하는 햇빛도 아니고, 사막의 열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르기 힘든 산이나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장거리도 아니었습니다.” 기자들은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예상외의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대륙 횡단 중 나를 가장 힘들고 견디기 어렵게 했던

것은 나의 신발 속으로 계속 들어오는 아주 작은 모래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래알’ 하면 대수롭지 않은, 아니 무시해도 될 만한 아주 작은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모래알이 그를 가장 힘들고 어렵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 중에 무엇이 가장 힘들고, 괴롭게 했는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모래알이 아니라, 바위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 앞에 닥친 큰 사건들은 오히려 잘 헤쳐 나갑니다. 이유는 큰 사건은 대상이 분명하고 반응이 즉각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

묘한 사건이나 미처 의식치 못하는 보잘 것 없는 사건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결국 그것이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망가뜨립니다. 그렇습니다. 걸어가다가 작은 모래알이 신발 속으로 들어오면 작은 모래알쯤이야 하며 무시하지 말고, 즉각 그 모래알을 신발 속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사단이 시험할 때도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면 오히려 잘 이겨내는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면 그런 줄도 모르고 넘어지곤 합니다.

김승연 목사

전주서문교회 담임목사,
예장합동총회 파송
독일주재선교사



건강칼럼

기독교상담과 성경적상담

교회사의 역사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모양으로 도전을 받아 왔다. 현대 교회사에 있어서 큰 도전이 상담 분야를 타고 들어오고 있는 심리학적인 분야의 도전이라면 사실 이러한 도전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려하여 심리학이나 기독교상담에 관한 경고의 글이나 비판을 가하는 것은 이들의 잘못된 시도를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하는 형제나 자매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충본성을 믿고 사역하는 성경적상담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역을 방해하는 가장 큰 대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지로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상담자]들이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사역의 현장속에서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성중독, 게임이나 도박중독 등등과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거의 모두 다 그러한 것들은 질병의 문제라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기독교인들일수록(본인들이 스스로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기독교상담자나 믿음이 좋다고 하는 [기독교인 정신과 의사]에 상담을 받은 후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일반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상담자들이나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정신과의사들이 가르쳐준 것을 확실히 믿고 나름대로 만든 신념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를 시도하려고 했을 때에 강한 거부반응들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

나님의 말씀이 무능력하게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신념들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실 변화의 기대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 가족들이 당해야 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분들이 결코 질병의 문제나 장애의 문제들이 아니라 오히려 극심한 죄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정신적인 질병이나 장애들의 거의 대부분은 성경에서나 장애들의 거의 대부분은 성경에서나 말씀하고 계시는 인간의 문제 특히 죄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17]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을 보면 얼마나 감격에 겨우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나 극심한 죄중에 있는 사람들, 혹은 세상이 말하는 정신질환이나 마음의 내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망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잘 인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소망의 말씀과 회개의 말씀 보다는 징계나 책망 혹은 깊은 어두움에 관한 것들만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게 하고 내적 치유 혹은 마음의 치유등등으로 불리우고 있는 심리학적인 테크닉의 변형인 최면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질하는지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흔히들 강단에서 전파되어지고 외쳐지는 말씀들 .. “능력의 하나님,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지으시되 사람도 지으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세상의 헛된 철학으로] 영혼을 죽이는 것을 먹고 있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들 그리고 주일이나 예배시간마다 외쳐지는 자신 있고 능력 있고 확실 있는 말씀을 준비한 많은 설교 속에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만, 정작 자신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전혀 이로운 것이 없는 심리상담가들이나 정신과의사들 혹은 기독교상담자에게 자신들에게 찾아온 소중한 생명을 맡기고 만다. 비단 말길 뿐만 아니라 목사 스스로 자신의 양을 이리 굴 속에 던져 놓고 와서는 잘되기를 기대하거나 혹은 자신이 참 일을 잘 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한다.

김주원 박사

알코올 및 약물 전문 상담사
본지 상임운영이사



“성경으로 본 건강학” 좋은 음악은 엔돌핀의 샘이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전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좇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 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시 150 : 1 ~ 6)

수험생 중에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든다는 부모들이 있는 것 같다. 소위 정신집중이 안될 것이라는 추측 때문이다. 그 일로 아이들과 다투는 일도 많다. 그러나 진실을 알고 나면 그것은 금지사항이 아니라 고려사항이다. 왜냐하면 좋은 음악은 두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커피의 효과와 영양 드링크제의 효과를 합한 것이라거나 할까? 아무튼 좋은 음악과 함께 공부하는 습

관은 신체의 원리를 잘 활용한 지혜에서 비롯된 것임은 틀림없는 일이다. 좋은 음악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 공헌한다는 사실을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좋은 음악이 공부의 능률이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음악이 건강에 활력소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음악은 영감의 원천이며 젊음의 비결이다. 음악은 인간에게 무한한 감동을 준다. 인간은 감동이 풍부할수록 활력이 넘

치고 그만큼 젊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좋은 음악은 두뇌를 자극하여 기쁨의 호르몬인 엔돌핀을 샘물처럼 솟아나게 한다. 특히 음악의 요소를 골고루 갖춘 조화있는 음악일수록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의 안식을 가져다 준다. 좋은 음악은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최근에는 질병의 치료에도 음악을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꼭 음악이 아니어도 좋다. 작은 새의 지저귀, 시냇물 흐르는 소리, 바람소리 등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도 마음을 쾌적하게 만드는 기분좋은 일이다. 특히 매일 아침 기상을 경쾌

하고 즐거운 음악으로 시작하는 것은 신선하고 생동감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비결이다. 건강하고 생기있게 살려면 좋은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사실상 타고난 음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개발이 덜 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노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어 좋다. 이런 의미에서 노래는 마음을 표현하는 총체적인 언어라고 할까? 사랑하는 사람은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부부가 처음 만나 데이트를 한 후에 콧노래를 부른 것을 기억할 것이다. 가장 맛있는 사

랑의 고백은 역시 오페라의 주인공처럼 노래로 하는 것이리라.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되어야 사랑이다. 성경은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전제하며 모든 수단(악기)을 동원하여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심지어 선히 치며, 춤추며 노래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인간 최고의 특권이자 기쁨이다. 그리고 찬양은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도 마땅한 명령이다.

황성주 박사 저 “성경 건강학” 중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조치원장로교회



담임목사
박 복 수

- 부 목 사 : 김정성
- 전 도 사 : 정현식
- 원 로 장 로 : 류영근, 강현기
- 은 퇴 장 로 : 나세영
- 이배은퇴장로 : 이두길, 정성협
- 장 로 : 유익식, 김준용, 김성경, 이윤근, 전중규, 김민용, 정건모
- 지 휘 : 임재암, 최호숙, 강정임, 강선헌, 유창근
- 피 아 노 : 김정임, 임사라, 윤해림, 전보람, 김현경, 이준호

생활목표

날마다 성경읽고 향상 믿고 기도하며 주일성수함시다.

심밀조 생활로 축복받고 전도에 힘씀시다.

지역봉사

행복노인대학(수요일) / 무료급식(수·금요일)
이·미용 무료봉사 / 장학금 지급
사랑의 연탄나눔기 / 조치원 마을 도서관 운영

유원계좌

농협 455041-55-000317 / 예금주 : 조치원장로교회

예배	시 간	교회 학교	시 간
대예배	1부 주 일 오전 9:00	유 치 부	주 일 오전 11:00
	2부 주 일 오전 11:00	유 년 주 교	주 일 오전 9:00
주 일 오후	주 일 오후 2:00	학 생 회	주 일 오전 9:00
수요일저녁	수요일 오후 7:30	청년·대학부	토요일 오후 6:30
새벽기도회	매 일 오전 5:00		
성가기도회	금요일 오후 10:00		

TEL : 041)865-1301 FAX : 041) 864-8255

교역자실 : 041)865-1302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평리 6-1

대한예수교

장 로 회

주





예배모습



담임 권세능 목사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구 분	시 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예배	오전 9:00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3:30
금요 철야 기도	저녁 9:00	청년회모임	토 저녁 8: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전화 031)714-1426, 7236

이 선 목사

▷예배안내

기 관	시 간	장소
장년부	새벽 5:00	대예배실
	1부 주일 오전 7:30	
	2부 주일 오전 9:00	
	3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 저녁 7:00	
금요일 오후 8:00		

▷주일학교 예배안내

기관	시 간	장소
유치부	주일 오전 9:00	유치부실
유년초등부	주일 오전 9:00	어린이성전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중고등부실
	주일 오후 3:00	
청년부	토요일 오후 7:00	제1교육관
셀장대학	금요일 오전 10:00	제2교육관
새벽예배	매일 새벽 5:00	대예배실

장기요양기관 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 - 1급 - 3급자 환영)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녹구리 89-8

www.1004tv.net 전화 033)541-0687 / HP 010-7405-9191

'군, 선교사역의 중요성을 말한다' “여보, 저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지을 땅이라고”

인물인터뷰
화랑교회 담임 김용호 목사



화랑교회 앞에서 담임 김용호 목사 부부

대한민국은 참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나라이다. 다른 국가들이 쉽게 누리지 못하는 4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 하심과 그분의 끝없는 능력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4계절이 모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봄'이란 계절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봄'은 '변화'의 계절이며,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계절이다. 겨우내 두껍게 얼어있던 강의 얼음들도 봄을 맞이하여 깨어지며 맑게 흐르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다.

또한 겨우내 두꺼운 겹겹질 덮여있던 새싹들도 그 겹겹 사이를 비집고 나와 연한 초록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다. 이처럼 봄은 감추어지고 숨겨졌던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게 해주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언제나 더럽고, 무겁고, 추악한 죄에 쌓여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에게도 봄이 필요할 것 같다.

사막과도 같은 곳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봄'과 같은 교회가 있어 화제이다. 충북 옥천에 있는 군부대 화랑군인교회, 담임 김용호 목사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 김 목사님 군부대 사역으로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참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랑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교회의 모습은 2001년 5월 6일에 기공되어 2002년 5월 6일에 헌당한 교회입니다. 부대의 제일 높은 곳에 위치했던 저희 화랑교회는 제가 이곳에



예배 후 화랑교회 앞에서 사랑하는 장병들과 함께

부임해 왔을 당시 교회 천장에 비가 새 곱광이도 나고 조립식이었어서 많이 추웠습니다. 장소도 협소하여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에 병사들만 70여명 정도가 모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몽친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간부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간부들의 관사가 전부 영외에

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심처럼, 저희 교회도 저를 아는 동역자들과 여러 교회의 기도와 선교비 지원을 통해 매년 16회 이상의 행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 정말 화랑교회는 주님의 능력과 믿음

“여보!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늘의 별을 만나러 가야지 땅의 별 만나서 뭐하게요?”

있을 뿐만 아니라 간부들 스스로도 영외의 교회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민간인 집사님 한분이 10여 년 동안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저희 부대에서 50km 떨어진 금산중대로 나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간부가 없다 보니 월 재정은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병사들의 땅이 섞인 소중한 헌금이지만 사실 한주일 중식비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군부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재정적으로 많이 열악한 상황입

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심처럼, 저희 교회도 저를 아는 동역자들과 여러 교회의 기도와 선교비 지원을 통해 매년 16회 이상의 행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 정말 화랑교회는 주님의 능력과 믿음을 통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생각나게 합니다. 한달 재정 20만원으로 2억에 달하는 교회 건축 공사를 하셨다니 놀랍습니다. 건축 당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2001년 어느 날로 기억됩니다. 연대 인사과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

다. “여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심처럼, 저희 교회도 저를 아는 동역자들과 여러 교회의 기도와 선교비 지원을 통해 매년 16회 이상의 행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교회건축이라 너무 좋았어요.” 그날 이후 몇 일이 지나서 사단 군종목사님과 2군사령부에 약속이 있어 아침에 교회에서 나가려는 중인데 아내가 제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늘의 별(목사님)을 만나러 가야지 땅의 별 만나서 뭐하게요?” 그날 2군 사령부 별들과 만남이 약속된 날인데 아내의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싶어 사단 목사님께 함께 갈 수 없어 죄송하던 마음을 드리고 전주 안디옥 교회를 찾아가 목사님을 찾아뵙고 교회를 지어야 할 당위성을 말씀드리자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 아내와 군중병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처음 뵈는 이동휘 목사님은 제게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전화 한통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말을 하고 방문한 터라 쉽게 만나주실지 좀 걱정도 되었죠. 이 목사님은 저희 내외를 기쁘게 맞아 주셨고 목사님과 미주한지 10분 정도의 시간동안 교회 건축의 당위성을 브리핑 하자 두말없이 “김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기

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면서 너무 말랐으며 비타민C 한 곡을 선물로 주시며 힘내라고 위로까지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하여 두어 달 후 이 목사님을 모시고 기공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여전도 회원을 여러분과 장로님들을 모시고 대형버스로 오셔서 저희가 전혀 신경쓰지 않도록 그날 점심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모습은 제게 예수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정말 닮고 싶은 목회자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3천만 원이 확보되어 건축을 시작 했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 건축이 쉽게 될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교회 지교회 다니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교회건축

해서 장병들을 구원시키고자 그리고 이 건물은 국가에 기부채납이 되어서 나오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들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중도금을 주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에 이한일 장로님이 오셔서 100만원씩 100명이면 1억인데 걱정 말라고 하시고 다음날 30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으로 중도금을 치를 수 있어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 다음 호에서 계속됩니다. 자세한 것은 WWW.JTNTV.KR 저지스타임즈 참조
※ 후원안내
우체국 300111-01-004844, 국민은행 405-21-0602-938 (화랑교회)
☎ 담임 김용호 목사 010-5766-1003

군선교는 민족복음화의 첩경

군장병 3천여 명 진중세례식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 태어나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 군목부(부장 박병식 목사)는 지난날 20일 논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장병 3천여 명에게 진중세례를 베풀었다.

이번 군 진중세례식을 위해 각 노회에서 50여 명의 집례자가 헌신했다. 군목부장 박병식 목사는 “오늘은 대한민국의 용맹한 국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 날”이라며 “이 세상에서 육적 전쟁뿐 아니라 어둠의 영과 벌이는 영적 전투에도 참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교회 군 선교사역 현황보고에 이어 세례교리문답(성동준 목사·입소대교회), 예배, 세례식,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용진 목사(연무대군인교회)의 인도로 드러진 예배는 류준배 목사(총회 군목부 총무)가 기도, 이재용 목사(총회 군목부 회계)가 성경봉독, 은평 김명규 목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선포했다. 김명규 총회장은 “세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면서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과 나약한 기독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부총회장 이강섭 장로(수정교회)가 격려사를, 총회 군목부서기 류기성 목사와 총회 총무 최



예장(대신)총회 논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장병 3천여 명에게 진중세례

충하 목사 등이 성경책, 십자가 목걸이, 빵, 초콜릿, 음료수, 세안용품 등의 기념품을 증정하고, 연무대 군인교회는 총회장과 군목부장에게 세례식 기념액자를 증정했다.

이어 군목부서기 류기성 목사는 “세례를 받은 훈련병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생명의 길을 찾았다는 사실에 기쁨을 가눌 수 없다”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사역이 더욱 힘차게 전개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다.

입소 2주차를 맞은 서주원 훈련병은 “아버지가 오늘 세례를 집례하는 교단의 목회자로 있어 더욱 감회가 새롭다”면서 “함께 세례를 받은 장병들이 병영생활은 물론 제대해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다혜 기자

도심속의 실버타운 노인장기요양(주·아간 및 단기보호) 사랑의 집 노인복지센터(요양원)

사랑의집 노인복지센터(요양원)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94-6 산곡프라자 3층
전화 : 032)525-2838, 204-2838, H·P 010)4423-2838
사랑의집(노숙자쉼터·무료급식)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정전동 102-13
전화 : 032)524-6884 팩스 : 032)508-2838 h.p : 010)4423-2838



치매,중풍,노환 등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년기 만성질환의 이리신을 모시는 사랑의집입니다. 현대식시설에서 가족과 같이 정성을 다해 내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 지대한 비움으로 모십니다. 입원시설 완비! 어르신들을 데리셔 오셔오고 모셔다 드립니다. 인터넷 '인전닷컴'에서 '치매'나 '중풍' 검색 (www.saranghouse.com)

■매주 화, 목, 토, 3일 동안 14년째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월 1,000원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사랑의 집(노숙자쉼터·무료급식) 비록 작은 정성이라도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사랑의집에서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바라는 많은 헌우들이 있습니다. 노약봉사·간병 전소, 목욕, 말발, 급식, 외출동행 등 전문봉사·이·미용, 간호조무사 의료봉사 등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www.scogop.net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지우일이 있느니라(고후3장 17절)

예배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예배	주일	오후 3:00	미전수원원
유치부예배	주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예배	주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성전
청년대학부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성전
스페인어예배	주일	오후 1:30	지하성전
새벽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성전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성전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성전
2시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원로목사 : 이철재 감독(Bishop)
담임목사 : 이정민 목사(Mi nis ter)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관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절)

감독 이철재 목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 어린이집(02)464-3107

세계치유선교센터 (www.twhmc.kr)

원장 민충만 목사

(세계치유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JTN방송, 본지 부사장)

매일치유집회 2회 : 오후 2시 / 밤 9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24-4 (태희프라자 3층)
대표전화 : 032)329-9182

010-9282-5873, 010-8376-2476

▶부천전철역(북광장)에서 서틀버스 수시운행
▶부천 소풍터미널 서틀버스 수시운행
서틀버스는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니 미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치유선교센터 개원예배 기념촬영)



국제선교신학연구원 (주님의교회)

담임 박현주 목사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167-6
♥항상친절한 전화상담
042)847-4711 / fax 841)4700
♥H.P 011-6755-1175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 장한국 목사 (본지 운영이사)

(우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 7층
전화 : 031)424-7612
H.P 010-4436-7060



구원론

현병우 목사,
임마누엘선교회 / 본지 부사장

예수님의 보혈 V-2

창4:1-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며 가인을 낳았고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을 낳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매가 없습니다. 창 4:25에도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해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허나 아벨을 낳을 때는 동침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로서 이들은 쌍둥이임을 알 수가 있겠고 이들이 쌍둥이여야 하는 이유는 가인에게서는 악을 보았고 아벨에게서는 선을 보았으니 선악과를 먹기 전의 아담에게는 영생(영원한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생명만 나왔으나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는 생명의 하나님이 떠나셨고 뱀의 독인 선 악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선과 악과 생명이 관하여는 기회가 있다면 차후 논하기로

합니다. 창4:10-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하십니다. 가인에게 돌로 맞아 피흘려 죽은 아벨의 피소리가 역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한다 하십니다.

레17:11-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무죄한 자의 역울함을 호소하는 피소리(생명의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처음 본문 말씀에 히12:24-새 언약의 증보이신 예수그리스도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나라. 아벨의 피는 자기의 역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소리요 자기를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피소리로 들으시고 응답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증보이신 예수그리스도의 피는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새 언약의 증보이신 예수그리스도와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새 언약의 증보이신 예수라는 먼저 언약이 있었다는 말씀이며 가에게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율법으로 주신 언약이 있으며 밀리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주신 첫 언약이 있습니다. (창3:21 히 9:14-15, 18-22) 이 두 가지의 언약의 공통점은 짐승의 피로 자기의 육의 죄를 대신 하는 것 뿐이며 창1:3, 창3:22에 오시기로 약속되신 예수그리스도가 오셔서 한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의로우신 피를 (벧전1:19-20, 히 9:14) 흘려주실 때까지 영 육간의 죄를 유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피로 주신 첫 언약을 자신의 죄를 유보할 뿐이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과 하나님과 하나되는 증보는 될 수 없습니다. 즉 짐승은 죄인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

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자신의 양피 즉 살을 베는 할례의 피로서도 죄 있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이요 생명이요 빛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사 장막을 치사 거룩한 산 제물 되신 한 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의 증보자가 되십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뿌린 피라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아벨의 피는 무죄한 자기의 역울한 죽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자기를 죽인 가인을 고발한 것 밖에 없습니다. 허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소리를 듣고 응답 하셨습니다. 예수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으셨고 또 오셨습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기독교시민운동중앙협의회 4대강 살리기 국민기도회 개최

4대강 살리기에 나선 기독교시민운동중앙협의회(대표회장 서상식 목사)는 4월 15일 저녁 6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국민기도회를 개최했다.

상임회장 정재규 목사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 한기총 명예회장 엄신형 목사 대표기도에 이어 한기총 명예회장 김자연 목사가 설교했다.

김 목사는“꿈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선진국 도약을 위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바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순서에 따라 나라안정과 국민화합을 위한 기도,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 위한 기도, 한국교회 영성회복을 위한 기도, 기독교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

운영회장 김기원 목사 사회로 진행된 2부 특강 시 국회조찬기도회장 황우여 의원은 세계도처에 물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기독교시민운동중앙협의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매우 뜻있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격려했다. 국토해양부 정중환 장관은 특강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상임회장 정재규 목사

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 부족 해소를 위해 필요하며 환경 보전을 위해, 녹색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운동협의회 대표 윤경원 장로는 읽으면 기도가 되는 4대강 살리기 기도카드를 나누어주고 사업추진 부서를 위한 목요일 기도문을 낭독했다.

전국장로회 중경회장 류성고 장로는 결의문 낭독을 통해 우리 모두 친환경 상품을 선호하고 생활

속의 녹색운동을 적극 실천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우리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폭제가 되도록 천만성도와 함께 기도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교회 지도자(목사·장로) 300여명이 모여 강당을 가득 메운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호기심을 가진 일반인들도 다소 참석하여 박수를 보내기도 하는 등 바야흐로 4대강 살리기 기도운동에 적극 동참하자며 다짐했다.

강기갑 ‘봉변’ “왜 북한에 퍼주나”이북놈들이 죽였다. 곤혹

천안함 회생장병들의 합동 영결식이 진행된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2함대 사령부 내 안보교육원에서는 잠시 소동이 일었다. 영결식장은 깊은 슬픔과 통탄, 애도와 추모로 엄숙한 분위기였지만 한 유가족이 맨 앞줄에 있던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앞으로 다가가“의원님 북한에 왜 퍼줍니까. 저들이 왜 죽였습니까. 이북놈들이 죽였어요”라고 항의를 한 것.

그 유가족은“주변 무기만 만들어서, 누구 좋은 일하라고 우리 국민더 죽으라고, 이거 주장하십니까. 정치만 잘하세요”라면서“이북 좀 주란 말 좀 그만하세요. 피가 뚫어

요, 누가 죽였어? 이북놈들이 죽였어. 그 소리 절대 마세요”라고 고함치며 오열했다. 이후 그는 쓰러져 땅을 쳐 행사요원들에 의해 부축 받으며 이동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오전 10시 조금 앞서 입장하면서 곧바로 유가족에게 다가가 일일이 손을 잡고 위로 인사를 했다. 또한 해군참모총장인 김성찬 장의위원장 조사 시 김 여사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고, 이 대통령은 조사, 추도사가 이어지는 동안 꽃꽂이게 제단을 응시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몇몇 의원들도 손수건을 꺼

내 눈물을 닦았다.

유가족 한화 이후 한 여성 유가족은 대통령 내외 앞으로 나와 편지를 전달했고 이 대통령이 일어서서 받으며 등을 두드리면서 위로했다. 11시경 영결식을 마치고 대통령 내외가 유가족 쪽으로 먼저 이동해 일일이 인사했다. 한 여성 유가족은 대통령에게 안겨 한참 눈물을 흘렸고 이 대통령은 등을 두드리며 위로했다. 이어 김 여사와도 끌어안고 흐느꼈다.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의 손을 붙잡으며“어떡하나요”“살려주세요”등 하소연을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데일리 동성혜 기자

태권도선교후원을위한 정재규목사 작품전시회

작품전시회 개막... 수익금은 할렐루야태권도단 선교후원으로 해외대회 사육

④세계스포츠포츠선교회 소속 할렐루야태권도단 선교후원을 위한 정재규(대석교회) 목사 초대전 기념예배가 4월 28일 오후 3시부터 5월 1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갤러리에서 열렸다. 정목사는 할렐루야태권도단 선교단장이자 화가, 미술평론가다. 이번 작품전시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할렐루야태권도단에 전달, 오는 10월 크로아티아와 모스크바 선교대회를 위해 쓰인다. 이력주 칼빈대 교수의 사회로 예배가 진행되어 홍덕선 장로(한국기독교서예협회장)가 기도를, 성경 히브리어 11장 1~3절 말씀을 인용 최윤관 목사(서울기독교대설립자)는“안 보이는 것의 승화”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미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함으로 새로운 감사, 새로운 감격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며“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길 목사(국민일보사무)는 축사에서“정 목사의 작품은 그림으로 된 시편”이라며“황폐화된 이 사회에 또 하나의 찬송으로 울려 퍼지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김소엽 교수(한국기독교문화예술총연합회장)는“시인이기도 한 정 목사의 시에서는 회화성과 음악성이, 그림에선 시정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고“그대는 나의 소중한 별”이라는 축시를 낭송했다.

이날 예배에는 목회자, 미술가, 시인, 선교단체 관계자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했으며, 이어 정목사는 인사에서“하

나님께서 계시하신 풍경 속 하나님의 은총을 작품으로 드러내고자 했다”말하고“특히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할렐루야태권도단 선교후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신목 목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할렐루야 태권도단은 현재 세계 23개국에 50여명의 태권도 선교사들을 파견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으며 국외선양에서 한 목슬하고 있다. 이들 선교사들은 각자가 파견된 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대통령 경호실장도 맡는 등 민간외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는 정재규 목사가 답임을 맡고 있는 대석교회가 중심이 되어 건축한 태권도 선교센터를 통해 임국현 선교사(공인 6단)가 선교와 함께 할렐루야컵 국제대회를 10회째 개최해 지역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정재규 목사는 태권도 선교와 함께 현재 39년째 작품 활동을 펴는 화가이며 미술평론가이기도 하다. 그런 연유로 오는 10월에 열릴 대회를 위해 정목사는 이번 작품전시회를 열었다. 18년 전에는 한국기독교문화총연합회 창설멤버로서 미술인 선교회를 창립해 대한민국 기독교미술대전을 만들어 수많은 기독교미술인을 배출하는 등 한국기독교미술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일찍 작가의 길로 들어서 나름대로의 길을 개척했지만 목회자의 길을 걸다보니 이렇다 할



작품을 탄생시키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소명이나 사명이 부응하기 위해 나 자신의 붓질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계신 풍경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부분 그 속에 십자가를 삽입하여 주님의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인생들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를 생각해본곤 한다며 그만의 작품세계를 공개했다.

정목사는 또 예수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대부분 작품 속에 세월과 고통 속에 고목이 된 십자가 나무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며 앞으로도 이 작품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와 이를 본 받아 살아야 할 크리스찬들의 책임과 의무를 깨우쳐 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개인전은 할렐루야태권도단 선교후원을 위하여 작품전을 가진 정목사는 한국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작은 일꾼이다. 기독교지도자협의회 상임총무, 세계스포츠포츠선교회 상임회장, 한국기독교문화예술총연합회 지도목사 등으로 한국교회 연합활동에도 기여도가 높다. 특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문화예술 체육위원장 재임시는 목회자 추구대회도 창설해 목회자 유대 강화에도 큰 공헌을 했다.

또한 정목사는 1976년 대석교회를 개척해 34년째 목양의 길을 걷고 있으며, 웨신총회 교문이며, 지저스타임즈 상임교문을 맡고 있다. 또한 베트남 선교기관인 국제사랑선교회 회장으로 맡아 베트남에 153개의 교회, 병원 7개를 건립해 해외선교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 캄보디아에 종합대학 설립을 위해 이미 부지를 확보해 동남아 선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과부, 이광선·이영훈 목사 등 ACTS 임시이사 15명 선임



지난달 23일 총학생회 등 6개 단체의 '교과부의 임시이사 파견 반대' 기자회견 모습

교육과학기술부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에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하고 15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사회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한기총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신일교회), 이종운 목사(서울교회),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괴영민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등이 임시이사에 포함됐다. 이영훈 목사는 관할청이 추천했다고 한다.

선임된 임시이사는 신원조희 등을 거쳐 오는 9월경에 확정되며, 이후 임시이사회가 열려 임시이사장을 선출하고 총장선임, 교수 재임용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은혜와치유의동산 만복수양관

365일 집회와 0시 예배를 통한 영적훈련장



만복수양관 원장 박귀자 목사 집회 중에서

침침 두메산골 아무도 찾아볼 수 없는 적막하고 숲이 우거진 땅, 황무지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응답해 주신 장소, 인도해 주신대로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이 자리 충남 논산시 벌곡면 만목리 443번지였다.

원장 박귀자牧사는 남편 이남웅 목사님과 함께 1999년 12월 25일 하나님의 인도로 이곳에 왔을 때 풀과 나무, 가시영경위로 숲이 우거진 이곳,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절망과 좌절할 수 밖에 없는 황무지이다. 하나님은 이곳을 기도 가운데 보여 주셨고 찾아온 이곳에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장소, 은혜의동산 치유의동산 영적훈련장이면서 소문난 영적종합병원, 만복수양관을 건축하고 성장시켜 주셨다고 말한다.

원장 박 목사는 남편 이남웅 목사와 시작장애인 성도 한 사람 등, 셋이서 십자가를 세워놓고 기도로 시작했다. 침침 두메산골 황무지, 거처할 장소도 없는 이곳을 500만 원의 빚을 내어 구입했고, 죽으면 죽으리라 사투를 벌인 결과 오늘의 수양관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돈 한푼 없는 박 목사는 기도원을 건축하기 위하여 견적을 내어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가 중단되는 수없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사를



원장 부부 (좌측 원장 박귀자 목사 우측 원목 이남웅 목사)

“하나님은 내게 영적 수양관이며, 영적 종합병원을 지으라고 응답하셨다”

진행시켜 주셨다며 눈시울을 적신다. 열악한 재정에 공사가 중단될 때마다 까마귀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처럼 어려울 때마다 공사가 진행되게 하셨다. 공사를 하는 동안 위암환자를 치료해 주셨고, 간암환자가 치료되는 등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으며,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손길들로 수양관 공사가 완성될 수 있었

다고 말한다.

현재 만복수양관은 대지 4천여 평에 3백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방들이 있고, 예배당과 기도실, 식당 등이 현대식 건물로 증축되어 있다. 또한 산들이 다녔자 형으로 수양관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어 경관이 빼어나다. 그동안 10여년이 지나면서 고인이 되신 신현균 목사와 지금도 왕성하게 활

동하고 있는 피종진 목사, 그 외 한국교회의 유명한 강사가 다녀간 기도의 요람지 은혜의 동산이다.

황무지와 같았고, 진퇴양난이었던 지난날,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왜 깊은 산골에서 이 고생을 하느냐? 이해가 안간다며 권편을 해 왔지만, 하나님은 내게 영적수양관이며 영적종합병원을 지으라고 응답해 주신 곳이며, 또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는데 기도원은 이러한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고 문제 해결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만복수양관은 365일 집회와 영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 하면서 매일 밤 기도원 주변을 돌며 기도하고 있다. 아울러 만복수양관은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일군을 배출하는 사역도 병행하고 있다.

신학생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을 받아 찾아온 학생들인데, 이들에게 물질을 후원하며,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신학을 마치고 나면 교단 소속이 없어 각기 흩어질 수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교단과의 교류를 확립하여 신학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원장 박귀자 목사와 남편 이남웅 목사는 모든 영광을 주 하나님께 돌리며 인사를 했다.

여성초 아토피, 변비에 특효 ...

신비의약초 민간, 한방에서도 탁월한 효과인정



여성초로 제조된 건강식품 여러 종류

여성초는 효능면에서 신비한 식물임을 인정받고 있다. 효과적으로 비만과 당뇨, 각종 암 치료에도 알려진 식물이며, 특히 아토피나 심한 여드름, 각종 피부병에 매우 효과적이다.

게다가 해독작용이 우수해 몸속의 온갖 독을 제거하며, 왜래 독, 몸속에서 발생한 자가종독, 세균 독까지 제거해 주는 매우 유익한 해독초(毒草)이다. 변비, 치질, 탈황치루, 무좀, 심장병, 신장병, 결석, 간장병 등에도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용도에 있어서 여성초 분말을 밀가루와 5:5로 섞어 물로 반죽을 해서 얼굴에 바르면 탁월한 미백과 윤기 나는 피부를 체험한다.

원장 박귀자 목사(만복수양관)는 남편 이남웅 목사(전원교회)와 여성초 생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대둔산 자락에 위치한 수양관 대지 4천평 중 1천여 평에 여성초 농장을 조성하여 약초를 생산하고 있다.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는 여성초는 환과 액기스, 건초, 팩, 로션, 생즙 등으로 가공되어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또한 여성초를 통해 선교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이 소문을 듣고 수양관을 찾아와 박귀자 목사가 인도하는 뜨거운 여성집회에 참석,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 박 목사는 수양관을 찾아온 목회자나 성

도들에게 여성초 차와 함께 식사를 대접하며 여성초 얼굴 마사지도 직접 해준다.

박 목사 부부는 여성초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다.

특히 아토피로 피부염을 앓고 있는 분들과 아이들을 둔 부모는 이런저런 생각할 필요없이 여성초 달인 물을 먹이고 여성초 물로 목욕을 시킬 것을 강조한다. 아울러 각종 난치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여성초를 통해 건강을 되찾고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여성초는 민간 약초는 물론 한방에서도 그 효과가 크다. 원자폭탄으로 폐허가 되었던 히로시마에서 제일 먼저 소생한 풀로서 원폭으로 고통을 앓고 있는 일본인들이 이 여성초를 복용하고 큰 효과를 보았다고 말한다.

여성초 건초는 쌀의 두 배가 되는 단백질(12.8%), 4배가 되는 지질(4.1g)을 함유하고 있으며, 현미의 12배 미네랄, 2배의 철분, 10배의 비타민 B1을 자랑한다. 박 원장 부부는 이 여성초를 한국교회에 널리 보급하고,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교회, 재정 운영에도 보탬이 되게 하겠다는 생각이다.

2010년 4월부터 10월 초순까지 여성초 수확기이다. 박 목사 부부는 이 수확기에 양질의 여성초를 수확해 특별히 아토피 환자들을 위한 제품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토피, 변비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신비의 약초 여성초, 한국 목회자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 등, 모든 가족들에게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생각이라며,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여성초 효능 ?

식물 분류학에 따르면 삼백초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서 학명은 Houttuynia Cordata라고 한다. 여성초는 다양하게 약용으로 쓰여질 뿐 아니라 환경오염과 일상생활속에서 공해와 독에 찌든 현대인에게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만병통치약이라고도 할만큼 각광을 받고 있다. 여성초란? 우리 몸속에 피에 해독작용이 특별해서 장기 복용으로 방광치료 염증치료에 효과가 있고, 난치병들이 나고, 특히 암의 염증치료에도 쓰임받고 있다. 일본의 민간 약사전에 소개된 여성초 효과는 변비, 치질, 탈황 치료에 여초초 고약, 비염의 약초, 여성초 낚일, 습진, 완선과 고름, 여드름, 무좀 등 우리나라에는 여성초 군이 여성초 잎보다 더 효과가 있어서 이용방법이 활발해져 가고 있다.

만복여성초 농장은 대둔산 뒷자락에 무공해 농장으로 자연이 준 천혜의 맑은 공기와 자연의 일로 건이 갖춘 재배하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에 무농약



여성초(건초식품)

으로 재배하고 있고, 충청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목회자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고 있다. 수확시기는 4월부터 ~10월 중순까지이며, 특별히 아토피 환자치유를 위해서 시설을 분비하는 중에 있다. 만복 여성초 농장에서 충남 논산시 벌곡면 만목리 443번지 ☎041)733-3970, 070)7740-3970, H·P 010)3403-0675

신비의 만복 여성초

비만, 아토피, 각종 암에 특효

제품명 : 건초

- ▶음용방법 : 건초 10g을 주머니에 넣어 물 2리터를 붓고 약 20분정도 달여서 횡수에 관계없이 온가족이 수시로 드시면 됩니(반드시 냉장보관)
- ▶생산자 : 만복 여성초 농장(완전 유기농 : 농약·화학비료무)

만복수양관 예배시간

매주 금요일 야성회(밤 10시)

성회시간 : 새벽6시 / 오전11시 / 저녁8시

충남 논산시 벌곡면 만목리 443번지

TEL : 041-733-1116, 733-3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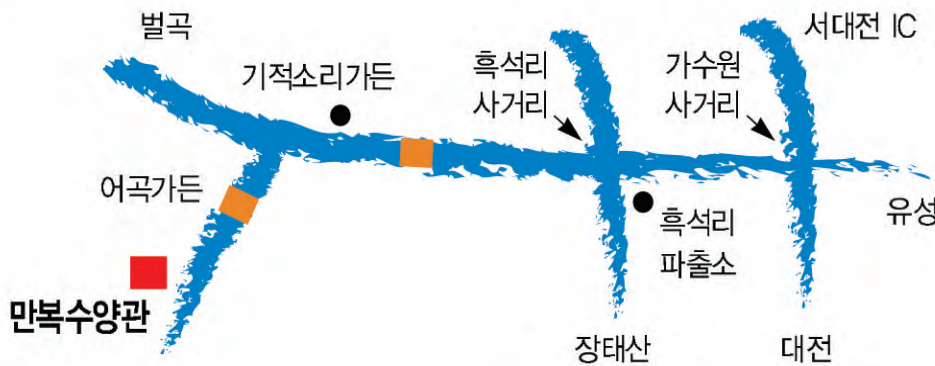
H.P : 010-3176-6191, 010-3403-0675

[찾아오시는 길]

차량운행 기독교방사회관

차량대기 오전10시, 오후6시

※제품의 판매금액은 작은 교회 돕기에 쓰여집니다.





춘천 특급 강조망 명품 땅 마지막 기회!!!

(주)해피웍은 시행 및 시공업체로서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꿈과 낭만, 희망의 도시, 박사마을로 유명한 춘천 서면에 투자가치가 보이는 명품 전원 주택지를 특별 분양합니다.

- ▷부지내 6m도로 공사
- ▷남동향의 배산임수형의 단지형부지
- ▷도심권 7분거리(도청, 대형마트, 대학병원등)
- ▷토임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불필요
- ▷주변시세 평당 150 ~ 300선(허가득)
- ▷본 필지는 15도 미만의 완만한 구릉지로 전필지가 강조망 확보 서면 유일의 단 지형 전원주택 부지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여 투자가치가 뛰어남.
- ※ 양평, 청평, 여주 지역과의 비교 거부.

분 양 조 건

- 3.3m²당 A Type 58만원 , B Type 65만원 , C Type 75만원
- ▲신청금 : 100만원 (미계약시 신청금 당일 전액 환불)
- ▲예금주 : 하준식 법무사 (농협 : 351-0138-6946-13)
- ※방문 계약시 계약금, 도장, 신분증 필요합니다.



- 책임등기 : 하준식 법무사 - 측량/인허가: 삼원 기술단

상담 및 분양문의 : (주)해피웍 대표전화 (02) 539 - 2008